

녹색등대

2022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일은
당신의 삶에서 오직 단 한번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단을 지나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주세요.
공간 안에는 누군가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손에 쥐어드리는 이 종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는 떠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와서,
마치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 처럼,
선생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세요.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눈을 뜨고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절대로 눈을 뜨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공간의 안으로 들어갑니다."¹

¹ 박관우, 〈졸다가 꾼 꿈 (The Dream During the Nap)〉 (2022) 중
입장하는 관객을 위한 안내 멘트 *



박관우, 〈졸다가 꾼 꿈〉, 생성형 사건, 가변크기, 2022
Kwanwoo Park, 〈The Dream during the Nap〉, Generative Event, Size Variable, 2022



1. 2052년의 이주사건	10
2.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편지	20
3. 증언들	22
4. 협약서들	134
5. 발견된 메모 A – 작자미상	169
6. 발견된 메모 B – 기자수첩	176
7. 코나투스, 이상한 꿈	180
8. 코나투스, 코나투스	184



녹색등대

Green Lighthouse

1. 2052년의 이주사건

전 지구를 휩쓴 20년대 초반의 전염병 사태 이후 약 십여년간 긴 침체를 겪었던 기업 '메타아(M.E.T.A.H)'는 2040년, 그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상국가 '이데아(IDEA)' '아이디어'라고 쓰지만 '이데아'라고 읽는다. 를 발표했다. 지난 30여년간의 부침 끝에 기어이 그들의 가상현실을 더 이상 '가상'이 아닌, 정말로 기능하는, 실재의 대안으로 부상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그 곳은 현실과 거의 같은 무게로 동시에 존재한다. 그것은 현실을 증강하는 도구로서가 아닌, 현실과 동일한 가치와

역할과 기능을 지니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서히 받아들여졌다. '이데아'에서 국가는,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일종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 기능하는데, 이 점은 실제 세계의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4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느슨해진 국가의 개념과 함께, 언어와 인종, 성별 또한 집단이 아닌 개인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50년 5월, 메타아가 가상국가 '이데아'라는 개념을 선보인 지 딱 10년이 되었을 때, CEO 머크 저커버그 (Merk Zerkerberg)는 앞으로의 새로운 10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의 마지막 발표 순서에서 '이주 프로젝트'(The Migration Project)와 함께 뉴-이데아 (NEW-IDEA)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개했다. 생물학적 신체가 가상국가 이데아에 감각 기반 디바이스로 접속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생물학적 신체를 '종료'하고, 뉴-이데아에 한 인간을 완전히 업로드한다는 그 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커버그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엄청난 난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다.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생물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 많은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좁은 차원에서 봐도 모든 숭고한 개인들이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이란 단어를 이제 '종료'라는 말

로 대체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완벽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67세인 자신도 80세가 되기 전에 뉴-이데아로 이주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발표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머스크 저커버그와 메타아 사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글로벌 유통체인 뉴럴탱크(NEURAL TANK)의 CEO 멜론 머스크(Melon Musk)가 자신은 이미 80세가 되었다며, 이 계획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완성 시일을 앞당기고, 자신이 가장 먼저 '이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여론의 행방은 또 다른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머스크는 메타아 사와 제휴하여 화성을 뉴-이데아의 서버 식민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공 들여온 화성 이주 계획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인간이 이주하기에 지나치게 적대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오랫동안 침체된 상황이었다. 몇 주 뒤,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후드티를 입고 '메타아'본사에서 회동하는 영상이 유출되는데, 이튿날 머스크는 이주 사업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몇 주간 계속된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표 다음 날, 이데아의 가상화폐 아이Dean(idean)의 가격은 하루 만에 열 배로 치솟는다.

2051년 5월의 마지막 날, 샌프란시스코의 메타아 본사에서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연단에 함께 올랐다.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로 개발기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며, 2052년 7월에 첫 이주 프로젝트를 시도한다고 발표하게 되는데, 이주 프로젝트를 왜 이토록 급하게 추진하는지와 관련하여 머스크의 건강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했다. 발표가 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머스크는 돌연 계획을 변경하여, 자신이 '이주'하기 전에 먼저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한다. 가만보니 겁쟁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해서인듯 그는, 베타 테스터에게는 인당 700만 달러의 사례금을 유가족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며, 베타 테스터 본인이 마치 '신'이 된 것 처럼, 자신이 '이주'할 환경의 조건 구성에 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약세 시간에 걸쳐서 이주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멜론 머스크는 닐 암스트롱의 유명한 문장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a mankind...!!!)"을 인용하며, 보기 드물 정도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주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베타 테스터로 최종 선정되는 사람들은, 그룹 세션(이것은 마치 정신과 상담과도 비슷해보였다.) 형태의 모임을 몇 달간 가지게 되는데, 과정의 목표는 이 세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이주할 그 곳, 뉴 이데아(New Idea, 뉴 아이디어라 쓰고, 뉴 이

데아라고 읽는다.) 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베타 테스터들에 의해 마치 영화의 시놉시스와도 같은 구성이 만들어지면, 메타아&이데아에서 그것을 코드로 변환하여 그것에서 비롯된 하나의 온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손길이 채 달지 않는 디테일들은, 메타아&이데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수집해온 세계의 거울 데이터들을 통해, 특정한 범위 안에서 랜덤한 값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이윽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면, 참여자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그들이 만든 세계의 한 시점에서 그 세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의 시간이 흘러 그 세계에서의 삶이 황혼녘에 다다르면, 코드는 다시 리턴하여 꿈이 시작했던 지점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²

뉴-이데아는 얼핏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기존의 이데아와 거의 유사하며, 단지 생물학적 신체가 남아있고 없고의 문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유일한 세계'가 된다는 점이다. 일단 그 세계가 열리면, 지금 여기서의 세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50년 이후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것이 안락사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지,

² 기본값은 반복설정이지만, 코드를 한 번만 실행하고 종료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안락사와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는 탓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사람들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 어마어마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51년 9월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위치한 이데아 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이름은 <레테의 강>³으로 붙여졌다.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다.) 여기서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연단에 올라,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러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해명을 하는 일에 힘을 쏟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발표 대부분은 저커버그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재미있다 싶은 질문이 나오면, 연단의 한쪽 구석에 묵묵히 앉아있던 머스크가 걸어나와 저커버그의 마이크를 받아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벅차 보이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도중에 여러 차례 주먹을 입에 갖다대며 말을 멈추었다.)

³ 그리스 신화 속의 망각의 여신이자 강이다. 아케론, 코퀴토스, 플레게톤, 스틱스와 함께 망자가 하데스가 지배하는 명계로 가면서 건너야 하는 다섯 개의 강 중 하나이다. 망각의 강이라고 불린다.

"〈이주〉프로젝트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지점 사이의 공간을 무한히 늘려 새로운 대안을 삽입하는 것이다."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종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의 주체적인 계획과 의도에 의해 설계된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 컨버런스 중 저커버그의 발언

기자의 질문 : 왜 〈이주〉의 세계는 이곳의 세계와 단절되어야만 하는가? 단 절되어있지 않아야 그곳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소 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멜론의 답변 : '뉴-이데아'는 현실의 '확장판'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다. 두 '현실'이 중첩 되어 있으면, 그 어떤 현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두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하나의 현실은 다른 '현실'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기 존의 이데아가 그러하듯) 이러한 이유로, 두 현실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뉴-이데아에서는, 아무도 그 곳이 뉴-이데아인 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이르기 위해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기자의 질문 :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어, 그들의 소위 새롭고 유일한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계 밖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멜론의 답변 : 그렇다. 이것은 일견 감각질(qualia)의 문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적인 좀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삶을 만드는 것이다.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에, 피험자의 인식에 실제로 완전한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수십 차례의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제는 피험자가 그것을 답변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치환했다.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삶의 코드를 작동시키는 첫 단추는, 피험자 본인이 누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체를 냉동함과 동시에,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류를 수집한다. 냉동이 완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동시에 수집되어 치환되는 전류는 코드를 작동시키는 첫 번째 트리거로서 기능한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코나투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생의 에너지는 보존되며, 단지, 다른 차원의 것으로, 그리고 다른 패턴의 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제 지구의 곳곳에 녹색 불빛을 내뿜는 등대가 설치될 것이다. 그 곳에서 녹색 불빛이 하나, 둘 씩 켜질 때 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어딘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타 테스터들의 모집은 2051년 12월부터 이루어졌고, 3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석 달간의 세션을 거쳐서 코드의 작성 또한 모두 완성되었다. 그들의 생물학적 신체는 불가역적으로 냉동되어 메타아&이데아 R&D센터에 영구적으로 보관될 것이다. 그들의 뇌는 6월 30일 오후 10시에 업로드 되기 시작하여, 0시 전에 메타아&이데아 디 얼티밋 얼터낫 서버(The Ultimate Ulternate Server)로 모두 이전 완료된다. 이제 삶이라는 모든 꿈은 7월 1일 0시에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삶이라는 모든 꿈은 7월 1일 0시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2.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편지

첫 번째 이주 대상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이주의 코드네임은 Rabbit Hole입니다. 메타아&이데아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래의 항목을 적어주시면, 여러분께 비밀 공유링크가 전달될 것입니다.

2052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하루를 메모해주세요. 이것은 일종의 '증언'입니다. 괜찮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기는 메타아&이데아의 임상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여러분이 이주하시게 될 이데아 2.0의 환경설정 초안으로 활용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허가 하에 인류1.0 기록보관자료로서 저장될 것입니다.

[주요 안내사항]

- * 먼저, 계신 곳으로 이데아 사의 휴머노이드 칸탈루프가 사전 연락 후 방문 드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안내 드립니다.
- * 이동비용은 전액 뉴럴탱크에서 부담하며, 이전에 신청하신 사항에 따라 입금해 드렸으니 사전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주'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2052년 7월 1일 아침⁴, 아름다웠지만 그렇기에 또한 제약이 많았던, 생물학적인 삶을 영원히 뒤로 하고, 새로운 인류 2.0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여러분의 뒤를 곧이어 따를 수많은 인류에게 커다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모든 생물의 역사에서 최초로, 여러분은 '생물'의 경계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귀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샌 프란시스코에서

Merk Zerkerberg, CEO at Group M.E.T.A.H, Chief Engineer of IDEA
Melon Musk, CEO at NEURAL TANK, and other 197 corporations

⁴ 원래는 6월 24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되었다.

3. 증언들

* 아래의 증언들은 Rabbit Hole Project⁵의 참여자 9인에 의해 실제로,
각자 작성된 증언들 중 일부를 모은 것입니다.*

2052년 5월 16일

“어쩌겠어요, 또 살아가는 수밖에요. 바냐 아저씨 우리 살아가도록 해요. 길고
긴 낮과 긴긴 밤의 연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참고
견디며, 마음의 평화가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든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이 오면, 얌전히 죽는 거
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얘기해요. 우린 고통받았다고, 울었다고, 괴로웠
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겠지요. 그리고 아저씨와
나는 밝고 훌륭하고 꿈과 같은 삶을 보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서 미소를 지으며, 지금 우리의 불행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드
디어 우린 평온을 얻게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열렬히 가슴 뜨겁게 믿
어요, 그때가 오면 우린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⁶”

⁵ 2022년 <1. 2052년의 이주사건>을 배경으로 작가는 실제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35일동안 집단 심리극을 진행합니다. ('Rabbit Hole'은 이 집단 심리극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누군가가 되어 첫번째로 이주에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해당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누군가를 연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지금까지도 서로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짜에 년도만 30년이 더해진 하루를 그들의 상상 속에서 살며, 아직 오지 않은 날의 일기를 매일 작성합니다. 이 집단 심리극의 마지막 날에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맞는 마지막 밤'이라는 이름의 파티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⁶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 나오는, 안톤 체호프의 연극 <바냐 아저씨> 대사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틀림없이 정해진 결말을 맞게 되겠지. 싸늘하고 딱딱한 물체가 되어서 새하얗게 변한 볼골로 철제 침대 위에 잠시 누웠다가 이내 잿가루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냉소적인 자들이 탕진하듯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종교에 이끌리는 것과도 어쩌면 비슷한 것일지 모르겠다.

삼십여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난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다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물음인지 즉각적으로 깨닫고 나의 질문을 스스로 철회한다. 아버지는 없지. 그의 유골은 분당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유골함의 화강암 덮개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살아생전 별다른 믿음생활 없이 살다가 간 그의 마지막 옷에 십자가를 새긴 것은 또 다른, 역시 믿음 없는,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것은 약간 보험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바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은 어둠과 함께, 누군가에게는 환한 조명과 함께, 거기에 있다.

우리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형물이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설치된 것을 뉴스에서 봤다. 마치 신호등같이 생긴 철제 조형물에 조명이 탁 하고 들어오면, 그것은 '대상자'의 가상세계 코드가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 우편으로 받은 계약 안내서에 굵은 글씨체로 적혀있었다.

2052년 5월 16일

생리가 끊긴 후부터 희망은 사라졌다. 난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운명의 남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이렇게 흉측한 얼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자와 손 한번 못 잡아봤는데 그런 남자를 만날 리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오늘 받은 독촉전화도 매우 스트레스다. 돈이 입금되면 빛부터 갚아야지.

이주 하는 게 나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왕 돈 받은 거 다 써버리고 죽던지 살던지 상관없다.

2052년 5월 16일

큰일이다. x 됬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정없이 나를 탓하게 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정신과 간호사가 넘지시 말해주었던 그 신문기사가 이렇게까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만한 일이 될 줄이야…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뛴다… 나는 아직 이를 것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이 이리도 많은데… 이렇게 죽게되는 걸까?… 아니… 대체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을까?...

...

나는 작가생활을 35년 동안 해오면서 아동바동 살아왔다… 남들은 나름 이름 있는 작가로 알고 있겠으나 항상 부담감이 상당했다… 명망 있는 작가들이 높은 위치에서 하나하나 잘해내 가며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볼 때면 나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만 갔다. 그렇게 살아오며 이제 일흔의 나이… 아직도 아동바동 작품을 보이는것이 너무도 부담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마치 평생을 살 것같이 살아오던 나도 70이라니…

...

종료 그리고 죽음… 죽음은 이전에도 언젠가 작업으로 다루어 보고 싶었던 소재였다. 자극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풀어내기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 주제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종료라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옵션은 내게 없었건만.. 내가 내 손으로 사인한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내 남은 삶을 포기하는 길이었다니…

...

이 실수를 만회할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가망은 없는듯하다…

바보 같은 AI 법관들… 인간의 사정은 알고서 판단을 하는 것일까?

계속 항소를 넣어보지만 매번 오는 답변은 같았다…

70세의 나이… AI에게도 나는 사회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력으로 판단되고 있는 듯하다… 내게 남은 삶이 적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30일…

2052년 5월 16일

세상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지만 내 과거나 성질머리는 바뀌지 않았다.

오늘도 아들은 내 말을 무시했다. 나는 4주 뒤면 이주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다.

이 아이가 앞으로의 세상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메타아로부터 받은 돈과 권리를 생각할 때마다 한순간 탕진하면 어찌나 걱정이 앞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5월은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고 길거리엔 고양이 한마리 살 수 없다.

인간 구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을 잘 들으라고 소리 질렸지만 애가 힘이 어찌나 세고 고집이 괴팍한지 역부족이었다.

난 아이에게 화난 감정을 담아 자외선 차단 가드를 세차게 발가 벗겼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내몰아 현관문을 잠궜다.

“어디 봐, 아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으니 아주가 정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이는 창밖에서 발바닥이 뜨거운지 옛날 가마솥 뚜껑에 튀겨먹던 메뚜기처럼 톡톡톡 튀었다.

2052년 5월 16일

‘이주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 다녀왔다. 대기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막연한 기대에 가득 찬 사람도 있었고 후회의 감정을 느끼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나는 어때 보였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아무튼 오타를 다녀오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았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우선 협약서에 쓸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자.

2052년 5월 16일

Rabbit hole 에 첫발을 내딛게 된 첫 날이네
초대장에 적힌 “인류를 위한 헌신”
닐 암스트롱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까

지금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코인의 신생과 발전, 몰락 그리고 죽음까지도 보았다. 감사하게도 나는 테스터에 선정되어 아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데아”에 투자한 거지. 그래서 700만 달러를 이데아에 재투자하고 싶다. 그만큼 이데아를 믿고 있고. 하지만 500자로 당신과 나의 이데아를 위하기엔 너무 부족하잖아. 음. 아니다. 나와 Rabbit hole 그리고 이데아의 발전을 위하여!

2052년 5월 16일

드디어 첫 번째 베타 테스터로 최종 선정되었다.
마지막 지구에서의 일상을 이곳에 기록한다.

2052년 5월 16일

요즘도 정신없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 이후로 일기를 밀린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밀린 일기를 쓰고 있다. 물은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나름 재밌어 보이는 다른 길을 선택해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연기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상적인 얼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데아가 생기면서

요즘 현생에서는 성형 안 한 배우가 인기라 나도 거기에 물타기로 인기가 생겼던 것 같다. 난 항상 코를 높이고 싶었는데 수영 때문에 못했던 게 신의 한 수였다.

다음달은 이데아에서 내가 첫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가 방송될 예정이다.

가상세계인데도 현실의 막장 드라마는 인기가 많아서 다행이다....ㅎ...

수영대회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

지난주 드라마 홍보하러 이데아 본사에 갔다가 같이 드라마 출연했던 민정 님이 한다는 참여한다는 아주 프로젝트의 베타 테스터 관련 안내가 붙어 있길래 직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다 나도 모르게 영업을 당해버렸다.

내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내 인생이라니. 분명히 나는 물이 싫어졌던 것 같은데 열등감으로 꽉 차있었던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리고 다시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막 내 몸의 퍻줄을 타고 흐르는 기분이었다.

항상 2등만 하던 선수 말고 1등 선수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내 성도 “이” 씨에서 “정” 씨로 바꿔버릴 거다.

2052년 5월 16일

여전히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 모두들 진실이라고 믿을까?

아니면 거짓이라고 믿을까. 아니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모든 것을 종료하고 난 뉴-이데아로 이주할 테니.

다만 가족과 친구들이 슬퍼할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멀쩡한 몸뚱 이를 버리고 뉴-이데아로 이주까지 하는 세상에 기억을 삭제하는 기술은 왜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차라리 나라는 존재를 지우고 떠나면 떠나는 나도 홀가분하고, 남는 그들도 편 할 것 아닌가. 물론 나의 삶이지만 배려 없는 종료에 이기적인 사람이 된 듯 하다. 하긴 이기적이 맞다.

하지만 나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내가 떠난 후 조금만 슬퍼하길. 뉴-이데아에서의 난 분명 행복할 테니.

2052년 5월 16일

진짜… 진짜 했다. 너무 막무가내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2052년 5월 16일

.....

2052년 5월 17일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a mankind…!”– 나는 이 영웅다운 한 마디에 제대로 꽂힌 걸지도 모른다. 크게 질병으로 고통받은 적도 없이, 그냥저냥 생물학적으로 잘 존재해오던 내가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도피했다. 누군가에게는 <이데아>가 정말 이데아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나는 어디든 상관없이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 떠나는 발걸음이 유의미하다면, 마치 ‘신’처럼 굴 수도 있다면야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052년 5월 17일

어릴 적 꿈을 꾸었다. 12살 나의 생일 파티. 역시나 엄마는 소중한 막내딸의 생일을 기념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정원에서 파티를 꾸미고 있었고 아빠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생일 축하노래가 울려 퍼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꼬옥 안아주며 준비한 선물을 주었다. 그때의 난 어느 어린아이

나 마찬가지로 애완 로봇을 가지고 싶었는데, 나름 12살 기념이라고 새로 출시된 스팟 12세대를 선물로 받았다. 환호 소리와 박수가 울려 퍼진다. 첫 애완봇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던 찰나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그 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꿈에서 깨다. 어릴 적 꿈이라니 기분이 이상하다.

S는 나랑 이야기가 잘 통했다. 흔히 반대라서 끌린다고 하지 않던가? 난 그 의견에 반대다. S와 나는 정말 비슷했다. 어떤 점에서는 똑같기도 했다. 12살의 나이에 맞지 않던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유머 코드, 가리는 음식, 심지어 성별까지. 나는 그 동일함에 편안함을 넘어 안도감까지 느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S에게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꾼 꿈 때문에 오랜만에 S가 궁금해졌다. 잘살고 있으려나. 하지만 일기에 S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J에게 들킨다면... 끔찍하다.

2052년 5월 17일

.....

.....

2052년 5월 17일

오늘도 드라마 흥보를 하고 왔다. 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다 우리 대표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갖고 온다.

아무도 내가 배터테스터로 가는 걸 모른다. 자꾸 무슨 서명 하라고, 글을 쓰라고 안내가 오는데 갑자기 후회가 든다. 뉴이데아로 이주하는 일정을 보니, 내 첫

주연 드라마가 상영되기 전에 내 삶이 종료된다.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나
다시금 고민이 든다. 나의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이 될까? 수영선수 다시 하고 싶은
거 말고는 어떤 세계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아직 안 했는데…

2052년 5월 17일

일을 그만둔 지 벌써 2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다. 볼 때마다 스트레스인 것
을 알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된지 오래인
데, 최근 며칠은 완전히 반대의 이유로 계좌를 수십 번씩 들락거렸다. 뉴럴탱
크에서 입금이 확인되었다. 평생을 계약직으로 전전한 나에게는 낯선 숫자들
이 찍힌 계좌를 확인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삶을 짓누르던 무게가 일부분 씻겨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돈은 모두 아이들 앞으로 보낼 것이다.

석달 전, 처음 ‘이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반대했
지만, 설득하는 데에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주’는 ‘자살’
과는 다르며, 오히려 정 반대에 가깝다는 점을 ‘메타아’는 특히 강조했
다.) 아이들은 으레 그렇듯, 나에게 여행을 제안했고, 아내와 아이들 셋
과 그들의 파트너, 그리고 손주들 도합 열두 명의 대가족들은 지난 30일
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2052년 5월 17일

이주 시기가 코 앞이지만, 당분간은 하던 일을 계속 해야한다. 아버지가 몸에 부
착하고 있는 디바이스 연결 포트의 요금이 시간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우
리 세대처럼 어릴 적 디바이스를 몸속에 이식하지 못한 구세대들이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 포트를 피부 표면에 물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포트들을 영구 부착을 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계층들은 렌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에 시간당 4유로를 지불하고 사용한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집안의 유일한 노동자인 나의 몫이다.

차라리 일하는 동안에는 심술생술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자.

2052년 5월 17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도 문득 이게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을지, 남겨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건 아닐지. 머릿속으론 이미 되돌리기 늦었다는 걸 알기에 몇 번이고 괜찮을 거라 다독여보았다.

2052년 5월 17일

인간에게 영감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나는 인류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의료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감을 주고 싶고 세상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언가라도 싶기 때문에.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육신이 없어지면 육신을 다뤘던 의료계는 쇠퇴할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정신건강의학은 더욱 발전하게 될까...

내가 3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지구든 이데아든 그 어디든지 세상이란 곳은 결국에는 불공평하고, 인간 역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욕망하며 만든 인간의 이데아는 더욱이 완벽할 수 없다.

2052년 5월 17일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 것과 별개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저 세계에서도 하루하루가 벽차게 느껴지는 건 그대로일까. 어쩐지 두려워진다.

몇 살의 나로 가는 것이 좋을까. 우선 허리 디스크와 피부 알러지는 빼달라 해야겠다. 그걸로 고생하는 건 이번 생으로 충분하다.

2052년 5월 17일

임신 24주 3일 차.

아침부터 메타아에서 콜이 왔는데 아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꼴도 보기 싫다. 듣고 싶지 않아도 집안 전체가 울리며 내역이 뜬다. ‘가기로 했는데 뭘 어쩌란 거야’ 화가 휙 올라왔다. 그냥 지금 당장 데려가도 되는데,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나는 짜증을 가라앉히기로 마음을 곱게 먹었다.

뉴-이데아로 갈까 고민이 깊어지던 밤, 사랑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도 하나같이 모두 다르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하는 방식도 다른 거지 하고.

스무살 그를 처음 본 순간이 떠오른다. 찌릿함과 설렘. 그 기억을 이주시킬까? 하는 생각 끝에 지금 그는 뭘 할까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뉴-이데아로 간다는 건 내 아주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을 줄 것 같아 그를 보고 솔직한 말도 하고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만난 그. 생각보다 더 멋져진 그를 보니 늙고 흐물거리는 살집에 뜻된 아줌마로 앉아있는 내 모습이 싸구려 소시지처럼 느껴졌다.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왜 그는 삶을 초월한 눈빛과 중후한 미소를 가졌는지, 왜 그에게서 행복의 향기가 나는지 궁금했다. 차마 묻지는 못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던 선배를 자세히 내 눈에 곰곰이 눌러 담았다.

대뜸 그에게 정자를 매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뉴-이데아를 입에 올려 곧 떠난다고 선언했다. ‘연약해’보이는 제스쳐를 통해 당신의 아기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처럼 어려울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평온을 깨트리고 싶었는지 시샘 가득히 뱉어 버렸다. 굳이 저자세를 취했다는 게 역겨웠지만.. 나는 매매 합의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붉게 살이 익은 아들을 봤다. 결국 당신을 몰래 사랑해왔다 고 말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밖에 표현하지 못한 내 살도 붉게 물들었다.

2052년 5월 17일

D-29… 나는 가만히 앉아 자연을 응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유가 없음에도 마음에 여유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자연을 바라보면 그것에 매몰되어 나도 그것과 하나 되는 느낌이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느낌?

...

그들이 말하는 ‘종료’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도 결국 나의 뇌의 특정부위에서 만들어내는 전자신호의 반응일 텐데… 행복에 큰 의미를 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행복의 의미 자체도 전자신호일까? 아니면 전자신호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같은 걸까? 하긴 의미는 내가 가지는 의미일 뿐 타인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 없잖아… 공감… 내가 종료되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존재들도 만들어진 혹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나도 실제 같은… 만약 종료 후에도 내가 영위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한들…

이미 700만 불이나 참여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나의 세상을 구현하는데 이들이 자본을 더 투여하거나 할까? 이쪽 세계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이것에? 이데아…초월적인 실재… 원하는 삶의 설정… 구원…

…

바보 같은 시스템 같으니 나를 실험체로 쓰는 것도 모자라 매일 기록을 하란다.

나의 시간은 금쪽같이 소중한데… 이것이 다음 이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나 뭐라나…

항소는 다시 기각되었다. 내가 환불한 계좌에는 다시금 700만불이 입금이 되었고, 내 마음은 타들어 간다… 계약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한 세상이 되어버리다니… 30년 전에는 나름의 목소리로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듣는 척이라도 해주었을 텐데 … 기업들은 이런 하점을 아주 잘 버무려 맛있는 음식 인 양 흡입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기술을 믿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회사를 홍보하려는 건 아닐까?... 또 그 AI라는 녀석이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프로젝트를 승인했겠지...

2052년 5월 17일

오늘 하루도 겨우 넘겼다. 차라리 아주 날짜가 빨리 왔으면. 그래도 어떤 세상에 갈지 정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오늘 같은 날이 딱 살기 싫은 날이다. 왜 내 계획대로 안 풀리는 거야. 연약한 몸뚱이와 바보 같은 머리는 뒀다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자기비하와 혐오가 뒤섞인 날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훨씬 때문이다. 오늘도 온종일 이데아에 있었다. 그나마 그곳에 정을 붙여 이런 몸뚱이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일주일 전에 이데아에서 만난 그 사람을 데려갈까..?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대화한 건 오랜만이었다. 글쎄..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확실히 1년은 넘은 것 같았다. 이데아 속에서는 그래도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나오니까. 돈이 없어 꾸미지 못했지만 몸에 결함은 없는 게 내겐 정말 소중한 것이다.

5년 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데아 접속기를 산 것은 내 인생을 틀어 가장 잘한 일이었다. 이데아 접속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이데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데아에서 한 얘기를 했다. 처음 발매된 후 2년 정도는 벅틸만했으나 이후 접속기가 없는 난 더 이상 같은 주제와 소재로 얘기할 수도 없었다. 그때였나? 일자리에서 잘린 게.. 이데아가

나오고 난 후부터는 필요가 없는 일이니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난 콜센터 상담사였다. 이제 사람들은 전화로 상담하지 않았다. 이데아를 통하여 모든 시스템이 간편하니까. 하지만 매일 매일 생계가 급했으니 이데아 접속기를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래도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접속기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접속기를 사면서 생긴 빚을 갚고 있지만 이데아 속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으니 그래도 내겐 구원자였던 셈이다.

2052년 5월 17일

.....

.....

2052년 5월 18일

The corporation asked me to keep diaries in the run up to my immigration to Idea. So here is my first.

I'll start by apologising for missing the first two entries. I was away from my home terminal visiting family in another biome. It's difficult to get access to the data stream for uploads there (the city is still running on BioOS 3!) and my memory sync credit is running low so I'm not sure how accurate a recollection I could give. Maybe some details will return to me in the next few weeks.

Anyway, tim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Luke, I'm an Organic Compound Integration Analyst working primarily in the Distributed Agriculture sector. My job is mostly development of circular bio chain management software, though I sometimes get involved in the messy groundwork too. But enough about my job. I guess the corp is more interested in my reasoning for signing up to the program. Oh wait... My neighbor needs to use the data stream, I'll explain more tomorrow. Signing off...

2052년 5월 18일

드디어 메타아에서 돈이 들어왔다. 돈을 받은 직후 바로 현실 세계의 옷을 샀다. 이렇게 질 좋은 옷을 입어본 지가 언젠지? 20대 이후로 현실 세계의 나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 원가를 구매한 것은 이게 처음 아닌가? 20대까진 아등바등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싸구려 조각이나마 발품 팔아 꾸며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나 자신이 비참했다. 문득 길을 가다 비친 유리창의 내 모습을 보니 몸에 걸친 것은 남들이 한 끼 식사에 쓰는 가격밖에 안 되는 것들로, 어울리지도 않는 어정쩡한 천을 걸치고 있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좋은 옷을 입은 내 모습은 여전히 못 봐줄 얼굴이지만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니 그럴듯해 보인다. 볼품없이 말랐던 몸을 말끔하게 감싸주는 질 좋은 천의 감촉은 우울하고 말라비틀어진 마음에 촉촉한 기운을 주는 듯했다. 앞으로 아주 전까지는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을 것이다.

일주일 전 이주 프로젝트에 참여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이데아에서 만난 그 사람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주었다. 이주하기로 한 날 배웅해줄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고 들었다. 이주할 때 그 사람이 와준다면 마음 놓고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의 고생의 흔적을 철저히 없앤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평생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말이다…

2052년 5월 18일

생물학적 신체는 나약하고 한계가 뚜렷하다. 그 탓에 신체와 정신의 괴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졌다. 이데아에서 ‘그 이상의 이상’을 꿈꾸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이었다.

마침내 새로운 세상이 오려 한다. 그간의 오랜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쁨에 전율이 일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오랜만이다. 불가능하다 여긴 것을 가능케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한때는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 숲길을 걷고 했다. 바람과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다.

‘삐|- 삐|- 삐|-’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이제 이 비프음이 유일하다. 스산한 바람도 바스러지는 나뭇잎도 느낄 수 없다. 이데아는 많은 사람을 질병

에서 구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많은’이 ‘모두’는 아니다. 다수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뒤편에는 누리지 못하는 소수가 있다는 말이다.
하필 그것이 나일까라는 생각은 지칠 만큼 했다. 행동하지 못하는 식물과 다
름없는 존재로 죽어가는 것은 그만두자. 이제는 데이터라는 숲의 나무가 되
려 한다.

2052년 5월 18일

D-28…

음… 더는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스템 안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는 않을까?… 마치 외주라고 생각하자.
죽음이 외주라니… 말도 안 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극비로 진행하던 것을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알
려야겠지?… 죽겠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잖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2052년 5월 18일

벌써부터 입이 균질거린다. 살면서 무언가를 숨겨본 적은 없는데,
숨기더라도 이내 곧 사실대로 실토했었는데… 계속 아주 생각을 하
면 정말로 모두에게 말해버릴 것만 같다. 완전히 잊고 할 일을 해야
지.

2052년 5월 18일

리튬, 조울증

까놓고 말해 나는 추하게 늙고 있다. 건강을 잃었고 가장 큰 원인은 정신과 약이다. 그럼에도 이 약들 없이 살 수 없다. 30년 이상 꾸준하게 복용량과 약의 수를 늘린 결과 내 뇌는 완전히 바뀌었고 매일 먹지 않으면 신경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내가 처음부터 이미 프라민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프로작을 먹지 않았더라면? 온전히 내 힘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답을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현재 살기 위해 죽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약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빨리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2052년 5월 18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아날로그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으니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수업시간에 몰래 쪽지로 대화했던 것이 떠올랐다.

2052년 5월 18일

요즘은 4시간가량 수면을 취한다. 아니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0시간을 꽉 꽉 눌러담고 빈틈 없이 써도 부족한 요즘이다.

오늘도 근무시간 내내 나의 뇌를 쉴 새 없이 가동했다.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나의 일 처리가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또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 시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매력 있다고 더욱 느낀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은 한정적이고 빨리 흘러갈까. 낮과 밤은 이어달리기 주자 처럼 순식간에 바톤 터치를 해버리고, 그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내 몸은 왜 달릴수록 숨을 헐떡이는 거지? 핸드폰 배터리처럼 방전되는 육신을 종료하고 이제 나는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에서 더 다양한 영감을 생성하려고 한다. 이데아에서의 그것은 무한하기를 바라며!

2052년 5월 18일

.....
.....
.....

2052년 5월 18일

오늘도 아침부터 드라마 홍보 회의가 있다. 말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다.

이주할 세상을 고민해야 하는데 내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일단 사람으로 이주한다고 협약서에 쓰는 건 기억해야지.

그리고 같이 갈 주위의 사람으로는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고
설정해야지,,,

2052년 5월 18일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얌전히 양로원에 들어가자는 말을 아내는 결혼 시작부터 늘 해왔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 말이 내심 듣기 싫었다. 우리는 삼십여 년전에 알郎 들룡의 안락사 결정에 관한 뉴스를 접했을 때부터, 안락사를 늘 동경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지.

죽음에 대한 관점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더 펼쳐지거나, 아니면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고 소멸하는 것이거나. '이주'가 제안한 것은 그 사잇길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낙원에서 영원히 회귀하거나, 아니면 무한하게 연장된 낙원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정해진 낙원의 시나리오를 겪고 소멸하거나,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52년 5월 18일

오늘 낡은 배관 수리를 하러 한 가점에 방문했다. 화장실의 디스플레이로 오늘의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고, 두 손은 나사를 조이고 있었지만 온 정신은 뉴스 속 실 새 없이 떠들어 대는 마스크에 음성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위대한 여정’이라..

그는 베타 테스터들이 마치 구원이라도 받는 것 마냥 칭송하곤 한다. 과장스런 말 투와 행동이 우습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수리를 마치고, 가점집을 나오는 순간 나의 가상 계좌로 50달러가 입금되었다. 이 것으로 오늘 아침 빠져나간 각종 렌탈 서비스 요금이 만회되었다. 이러니 일을 해도 보람이 없지.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2052년 5월 18일

겨우 마스크나 쓰고 돌아다닐 때가 좋았지.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엔 새 호흡기 필터를 일회용처럼 갈지 않으면 기침인지 재채기인지가 날 괴롭혀서 살 수가 없다. 햇빛이 살갗을 파고들어 반팔을 입을 수도 없다. 뭐, 사실 이 모든 걸 감수할 만한 약속이 아니고서야 집 밖에 나갈 일이 딱히 없긴 하다.

오늘의 소소한 행복은 메타아에서 준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기였다. 사실 이 액수가 현재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되어 주진 않잖아. 나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혜택은커녕,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어딘가의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기까지의 시간 동안에도 어딘가에서는 나는 상상도 못 할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었겠지. 그런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된 나란니, 참 감회가 새롭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은 나의 이 선택을 부정하셨지만.

2052년 5월 18일

목적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일까.

이성 간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 결과물 없는 것은, 즉 쓸모없는 것과 동일시된다.

쓸모없는 것에 대하여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동성애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존재이다.

커밍아웃을 한 수많은 과거의 유명인사들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다. 디오니소스의 세계와 같았던 세대가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 그것은 지금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같은 것이다.

그래도 가끔 상상하곤 한다. 그 시절이었다면,, 환영까지도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존재 자체만이라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였다면 나는 이데아행을 선택했을까.

나의 의지로 이데아행을 택했다고 그동안 자기 위로를 했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날 배척한 사회의 선택이지. 선택지 없는 선

택에 애써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정신 승리 중인 나의 모습에 유독 진절머리나는 하루다.

2052년 5월 19일

오늘도 몸을 뒤집는 감각에 눈을 뜨다. 4시간마다 강제적으로 체위를 변경시키는 것도 기저귀 속의 피부를 살피는 것도 나를 위한 행위라고는 하나 이 모든 것이 귀찮을 뿐이다.

살면서 처음 느낀 수치스러움도 사라졌다. 이제는 내가 과연 살아있다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의문도 듦다. 눈만 깜빡거리는 것, 사실상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락트-인증후군’. 나는 환자다.

2052년 5월 19일

.....
.....
.....
.....

2052년 5월 19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말이 있다. 현세의 필멸이 존재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영생을 위한 현세를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가족

들은 모두 영생의 세계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고.

부모님은 죽음에 대해 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난 자신이 없었다. 내가 살아온 현세의 삶이 영생에 다다를 자격이 없다면 어쩌지? 난 아직 죽음이 두려워.

나를 괴롭히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지만, 여태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다.

“한 번이라도 이 둘 사이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었는가?”

9와 3/4 승강장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길 바랐다. 불가능이 가능하며, 머글이 아닌 자들에겐 예사로 여겨지는 세계 같은……
이데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히려 그곳에선, 오래전 현세에 굴복당한 바람들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2052년 5월 19일

이른 새벽에, 이번에는 혼자 바다를 향하는 차에 올라탔다. 해가 깨어져서 여섯 시가 되기 전에 하늘이 밝아왔다. 급하게 길을 나선 것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다 근처에 이르자 부는 바람과 함께 여러 기억이 함께 쓸려왔다.

사람의 소리가 최대한 들리지 않게 가능한 가장 외진 곳의 해변가로 왔다. 짙고 무거운 침묵의 표면 위로 파도소리만 남겨져 있었다.

어렸을때는 욕망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기도를 잊어버렸고, 스스로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았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은 그것도 잊어버렸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녹음기를 켜고, 이런 두서없는 문장들을 혼자 내뱉는 중이다.

나처럼 혼자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정말로 혼자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보다, 그저 지나치게 과묵한 누군가의 옆에서 넋두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언제나처럼 지나치게 과묵하지만 묵묵히 내 곁을 지키는 그를 묵상한다. 내가 하는 말들에 그는 늘 침묵한다. 나는 생이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그의 말문이 터지는 상상을 했다.

2052년 5월 19일

하 간만의 맥주다. 아무 생각 없이 술만 퍼마시며 시간을 죽이던 대학생 때가 배가 불렀던 거구나 싶기도 하고.

이데아로의 이주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해 본 적 없던 생각들을 이 일기에 쓰게 된다. 또한 슬슬 나만의 이데아 시스템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절대 이데아만큼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생각하자.

Desire/Time/Risk/Being/charming/eternal life?/etc..

음, 일단 **Desire** 욕망

욕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이 최선이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들. 그 아쉬운 욕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곳이 이데아임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에 갈증을 느낀다. 나 또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지구는 한정적인 곳이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삶의 동행자와의 시간은 물론 연료든 식량이든 무엇이든 한정적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배불리 먹이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이데아에서 이런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졌다. (나를 이렇게나 구체화 시킨 메타아-측에 감사를 표한다 !)

내가 지금 바쁘게 사는 것도 이 삶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도 서로가 사랑하는 것들의 행복 시간을 벌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에 참가한 박주은의 첫 발자취가 너에게 영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맥주는 너무 마싯따! 술은 꼭 이데아에 가져갈거○

‡ . . . Zzz

2052년 5월 19일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까마득한 과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과연 나의 선택이 진정 옳은 거겠냐는 의문이 들었다. 결국 친구들에게 떠날 거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2052년 5월 19일

기사가 났다. “메타홀릭 : 이데아의 퍼퓸 디자인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 시가총액 4310억 달러”

2052년 5월 19일

D-27… 빅뱅이라는 폭발이 있으므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한다. 나는 그저 부품일 뿐이었을 뿐 전지전능한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순순히 살던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만족함을 안고 죽기를 희망했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로 종료되게 되다니…

하긴…어찌 보면 새롭게 이주하는 시공간을 가르는 데이터의 세상에서 나만의 우주를 창조한다니 작은 의미에서는 내가 또 다른 세상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겠군…

그래도 도무지 마음에 가질 않는다.

종료는 죽음일까? 죽음은 종료일까?

2052년 5월 19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법당에 가기로 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산책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돌덩이 위에 앉아 나무나 쳐다보다가 일기를 쓴다. 내가 딱 50살이라니, 반세기 정도를 살았다. 내가 살아있던 반세기 동안, 시시하게도 별 변화가 없었다. 엄청나게 미래처럼 느껴졌던 그 2052년에도, 나는 종이에 굳이 일기를 쓴다.(지금은 디지털 텍스트로 다시 읽기지만) 반찬

으로 시금치 무침을 먹는다. 스키십도 진짜 손으로 진짜 혀로 한다. 바람도 온몸으로 느낀다.

나는 이런 평화로움을 사랑해서 일할 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살아있는 공간을 음미하며 보냈다. 과거형으로 일기를 쓰는 건 역시 곧 변화될 환경을 우려하는 거겠지?

몸이 자라도 얼굴이 쭈그러들어도 목소리가 변해도 성격이 바뀌어도 결국 똑같은 ‘나’ 였다는 걸 기억하며… 다음 주쯤 아주 탓에 변화할 몸뚱어리를 걱정해본다.

2052년 5월 19일

뭔가에 중독된 것처럼 사들이고 있다. 좁은 집에 가득 찬 물건을 보고 뿌듯함을 느껴야 하는데 왜 허무할까.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무한한 기쁨을 느낀 만큼 허무함이 밀려온다. 이렇게나 싸대는데 돈이 출지가 않는다. 난 왜 그동안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일까?

다시 이데아에 들어갔다. 돈이 들어온 이후 일은 그만둬 출근도 안하고 쇼핑하느라 잠시 접속하지 않은 것이다. 이데아 접속 장치를 산 이후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다. 역시 난 이데아 안에서 가장 편하다. 그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 혹시 날 어떻게 생각하나요?

2052년 5월 19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지금의 내 삶이 괜찮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협약서를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이다. 그냥 현재의 내 삶을 통째로 끊겨달라고 할까? 그리고 막상 다시 수영선수의 삶을 살려니 경쟁이 조금 재미없다는 생각이 듈다

2052년 5월 19일

Long night, the organi-thermal circuit powering my apartment's farming floor was on the blink again and since I'm the only resident who has some expertise in that area I had to patch it up. Easy enough to do with a little help from the buildings' domestic maintenance bot.

Where was I, ah yes my reasoning for joining the Idea Immigration program. I won't beat around the bush, the planet is in free fall. All those grand climate management targets we were sedated with over the past 50 years were distractions dreamt up by the fossil fuel giants' in a last ditch attempt to extract what remaining value they could out of the earth. Why? Because they knew Idea was coming, and they knew that if they managed to gather as much old world capital as possible they could buy their way into a new state of permanent bliss, free of the shackles of organic matter. I think I'm

free to say this in the diary... Just to confirm, I'm no heretic, these are just facts. Work gives me access to some crazy data.

I don't know what to expect from this digital existence, where the chemical network of my human body becomes a series of electrical signals. But I do know that this planet is dying and the only solution left, as much as I think it's ridiculous, is to 'upload myself to the internet' as my parents' generation used to say with their air of new sincerity. Just hope these yillionaires manage to launch the interplanetary solar array in time so the lights don't switch off on our little slice of digital heaven before it even gets started...

2052년 5월 19일

나의 첫 기억, 아니 나의 디바이스의 첫 기록 속에 나는 소리 없이 흔들이는 전동 요람 속에 누워 태양계 모빌을 보고 있다. 행성들은 우주의 시스템 안에서 둥실둥 실 떠다니다 언젠간 결말을 맞이하겠지.

나의 첫 감정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흥분도, 무언가를 처음 해냈다는 기쁨도 아닌, 공허함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허무주의 속에서도 나의 신체에 이식된 디바이스 덕에 영양과 발달은 항상 최고의 상태였으므로, 문제없는 몸으로 선택권 없이 사회 속에서 표류해야만 했다.

나는 내가 보았던 태양계 모빌과 내가 크게 다를 게 없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시스템 안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존재. 태양계는 경외롭지만 환상이고, 모빌은 실제하지만 하찮다.

2052년 5월 19일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이럴 때면 하루빨리 이데아로 가고 싶다. 입장발표를 하지않는 나의 소속사도 나와 같은 생각이겠지.. 이데아행 제안이 들어왔다고 어쩔 수 없는 듯 말하며 선택은 나의 몫이라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마 무시한 위약금을 물어낼 방도가 없는 소속사가 나 몰래 나를 테스터로 지원을 했다는 것을.. 성 정체성 스캔들로 인한 계약위반보다는 이데아 행 때문인 계약위반이 더 싸게 먹힐 테니 자본주의의 이 판에선 눈감고도 예상 가능한 일이지.

현실세계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보자.

나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현실에 남는다면?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설명해 드릴까. 그래 그건 둘째치고 CF, 영화의 각종 위약금에 앞으로의 밥줄도 끊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며 현실에서 사람답게 살아 가지 못하겠지. 결국 한정된 이데아 접속에 매달려 전전긍긍 살아가려나.

문득 어디선가 보았던 문구가 떠오른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언젠가 들켜버릴 일이라면... 차라리 지금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듈다.

2052년 5월 20일

기사를 보고 연락 온 해외 기자들이며 지인들, 축하메시지로 정신이 없었다.

잠시 명상을 했다. 리튬과 함께,

어린 시절 일본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주 잠깐이지만 태어나 가장 순수했던 시절, 환상처럼 남아있는 북해도의 모습은 하얀 겨울과 얼음, 차가운 공기에 눈이 부시다. 이젠 북해도도 눈이 잘 오지 않으니 이데아에서 실현하고 싶은 노스텔지어는 여기로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

그리고 이데아에 아들은 꼭 데려갈 생각이다. 가서는, 정상지능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꼭 살게 해주어야지, 폭력적인 엄마는 지우고 애정이 어리고 따듯한 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야지, 다짐해 본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몇 주라도 그렇게 보내줄 수 있을 텐데.

2052년 5월 20일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 그래 봤자 난 다시 같은 선택을 했을 거고,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사람이거든. 차라리 다시 태어난다면 모를까.

2052년 5월 20일

노래와 사진 앤범 정리를 했다. 꼭 협약서에 적을 것만 골라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 훌러간 시간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가 보다. 저 세계의 나는 이 세계의 나와 같은 노래를 즐겨 듣고 같은 추억을 회상하게 될까. 저 세계의 나는 이 세계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

2052년 5월 20일

이데아 안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더 휴식을 취하기 좋다. 이 안에 들어오면 피곤이 풀리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각하지 않는 것일까? 난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남자에게 너무나도 말을 걸고 싶다. 내 평생 이렇게 용기내어 볼까 생각한 적도 없다. 죽는다는 생각이 다가온 거절의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어차피 거절 당해도 난 그 남자와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d-day를 월요일로 정해야겠다. 두 번째로 이주 협약서를 작성하는 날로 말이다. 어떤 가상세계로 이주하고 싶은지 그 사람과 어떤 세계에서 살아갈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2052년 5월 20일

손을 들고 싶다. 소리를 내고 싶다.

눈을 천천히 감는다. 언뜻 본다면 깊은 수면에 빠진 듯한 모양새다.

힘겹게 다시 뜬다.

눈길의 끝을 따라 안구 마우스는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낸다.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한다. 마침내 강렬한 욕구가 모니터에 비쳤다.

‘뉴스’

이 얼마나 작은 바람인가.

A는 물끄러미 모니터를 보더니 뉴스를 틀었다.

세상은 이데아의 방향에 대해 떠들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 속에는 우려의 목소리, 기대감, 혹은 공포 … 말하는 자들의 혀 수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2052년 5월 20일

D-26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 기록을 남겨본다. 어찌 보면 내가 남길 수 있는 이 기록이 나의 마지막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작품들이 나를 추억하는 일종의 도구이자 나의 조각이 될 수 있겠지… 나의 정보의 데이터가 새롭게 맞이할 세상은 나를 어떻게 유지 시킬 수 있을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나의 행동분석이 나를 계속 살아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왜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게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 역시 내가 원하는 세상은 타인과 공유되었을 때 해체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남들과의 공존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음과 마찬가지이듯이?…

오늘 문자를 받았다. 이데아 프로젝트에(내게는 이 사기극이 실험이라고 느껴지지만 내 삶이 걸려있는 만큼 실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참여하는 참여

자들이 작성하는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남들이 이 쓰는 것을 보고 공감대를 느끼라는 것일까? 아무튼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님도 없다…

2052년 5월 20일

아 어젯밤에 맥주를 두 캔이나 마셨더니 기분이 매우 좋았나 보다…

그래, 술은, 이 느낌은 꼭 이데아에 업로드 시키자 ㅋㅋㅋ

이제 Time, 시간에 대해 생각해볼까 대학생 때까지 나는 이 노래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 근데 요즘엔 이 노래가 많이 생각나더라 그리고 이데아를 생각하면 들리는 노래기도 하고

내가 중요할 때 존 건
시간이 조아서 그런 건데
내가 주워들은 건데
비싸다며 그게 그렇게 돈처럼
그럼 그걸 막 써도 되냐 물어보면 그건 오해라
해명하려 해 뭔가 다들 쫀 것처럼
한 번 쓴 시간은 참 시크해서
두 번 쓸 수 없지, 또 시간은 그 맛이
가볍고 빨리 가버리지, 잊어버리기가 쉽지
다시 찾고 싶을 때는 이미 없지
시간은 언제나 내 앞에 걸고 있지
따라가기 전에 난 벌써 지쳐 ㅠㅠ
밤이 늦었는데 난 작업하려고 해 시간에 쫓겨 ㅠㅠ
자꾸 멀어져 난 시간에 끌려가 ㅠㅠ
Time is not our friend
:
시간을 잡아서 난 천천히 죽게 둘래
SO I'M RUNNING TO U

(널 잡아서) 절대 내 손에서 안 놓을거지
욕조에서, 소파에서 원 없이 편히 쉬고
영화나 한편 때리고 파 시간의 목을 쥐고
근데 역으로 시간이 내 손목을 움켜쥐고 있지

:

그때 그때 그때 I'll be tickin tickin like cray
그때 그때 그때 I'll be taking all of your fame,
그때 그때 넌 깨닫겠지 that I took your babe
그때 그때 넌 깨닫겠지 that we can't be friends
Fuck I can't wait, till that day comes

이 노래를 토대로 이데아를 꾸려가야겠다. 그곳에서는 시간을 잡아서 내 발밑에 둘 거다. 너도 한 번 들어봐. 그럼 이만!

2052년 5월 20일

오늘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다.
내가 태어난 해인 2022년 전에는 술값이 저렴했다는데, 그해에
터진 러시아전쟁 때문인지 술값은 지난 30년 동안 매해 비싸지
고 있다. 소주가 30만원 이라니
내 주량으로는 술 한번 마시려면 정말 몇 달 동안 적금을 들어
야 할 판이다.
아 아주 협약서에 내가 거주할 곳 옆에는 공짜 바 하나 차려달라
고 해야지. 다음 주면 이번 생을 종료하고 이데아로 영영 떠난다
고 하면 친구들은 무슨 반응일까.

2052년 5월 20일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요청할 수 있으면 나는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알고 있는가?

2052년 5월 20일

래빗홀은 우리가 이주할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래빗홀의 세부사항들을 구성하기 위한 미팅이 앞으로 세 번 정도 잡혀 있다. 나는 나의 래빗홀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창조의 구멍들은 랜덤으로 메꿔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에 관한 고민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무엇이 먼저 오고, 무엇이 나중에 오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오래 생각하다 보면, 사실 나는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영원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호르몬의 보상회로에 따라 그때그때 무언가를 욕망하기는 한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한 것은 또 마약이다. 궁극의 쾌락은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파괴한다.

2052년 5월 20일

아버지께. 저는 돌아갑니다. 환상이지만 경외로운, 제가 왔던 그 품으로 되돌아갑니다. 부디 슬퍼하지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 주세요. 이것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미련도 허물도 남기지 않는 남만적인 해방이자 아름다운 소멸입니다. 저를 부러워하시고, 저를 위해 기뻐하셔요.

다만, 이 메세지를 조금 늦게 전해드려 미안합니다. 저는 이미 지구에 없겠지요.
이 결정을 한 뒤, 눈을 떴을 때부터 감을 때 까지 수백 번 맘설였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보기도, 입을 무작정 떼어 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의 눈을 보며 저의 결정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람.

2052년 5월 20일

어제는 저렇게 여유로웠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거 취소할 수 없나? 씨발 안 되겠지… 괜히 나大专나 보다. 언제까지고 특별해지려 발악하다가… <뉴-이데아>에 가는구나… 일기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원래 사람은 낯선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지 만…… 줄 없는 번지점프가 며칠 안 남았다.

2052년 5월 21일

지긋지긋한 두통도 곧 끝이 나겠지. 부디 이 프로젝트가 질병에 대한 내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며.

2052년 5월 21일

이데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친구를 만났다. 대체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도 불만이 많은 눈치였다. 뭔가 동료를 만난 느낌이었다. 며칠 전 참여한 모의 미팅에서는 참여자들이 뭔가 세상에서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의 장소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뭔가 어색했다. 뭔가 나랑은 관련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프로젝트

가 희망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어보니 참…묘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늘을 나는 능력? 백만장자? 무언가 엄청나게 결핍된 삶을 현생에서 살아보지 않아서인지 죽음을 통해 원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모순덩어리처럼 느껴진다.

2052년 5월 21일

이데아로의 완벽한 이주를 위해서는 완벽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니면 웬 짐승으로 변할 수도 있다나.

2052년 5월 21일

.....
.....
.....
.....

2052년 5월 21일

아내를 공항에 바래다주고 집에 와서 낮잠을 두 시간이나 잤다.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마실 것을 찾았는데, 처음 보는 음료수가 있어서 마셔보았다. 오랜만에 그렇게 단맛은 처음 느꼈다. 그것은 음료수가 아니라 물에 타 먹는 엑기스 같은 것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나의 사무실 벽 한 귀퉁이에는 “감각은 믿을만한 것인가?”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사를 다니던 중에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게 된 그 액자는 25년 전에 내가 다니

던 일종의 토론모임에서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다. 그 질문은 소위 ‘바칼로레아’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입시험 철학과목의 발제문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내 기억이 아직 맞았다면.

그 모임은 말이 토론모임이지 사실 정서적으로 갈 길 잃은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친목모임, 안식처 같은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모임들이 종종 있었다. 이런 모임들은 다들 결혼하고, 다른 일들이 바빠지면서 잊히게 되었다.

2052년 5월 21일

산부인과 진료 시간이 되어 담당 간호봉을 만났다. 로봇 이름은 메이, 5월에 임신한 여자들 중의 하나인 나.

생각보다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라던 정부는 원하는 임신과 출산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대행 업체들을 끼고 있다. 개중엔 자연임신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인생의 타이밍에 맞춰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3주 뒤면 정말 이주를 한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듦다. “너도 이주를 같이 할래 엄마랑?”

처음엔 이 녀석을 위해서 재산을 남기고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데아로 같이 데려가면 어떨까 하고 있으니 이주자가 아니고 나라는 정체성에서 이탈자로 가고 싶단 말밖엔 솔직히 할 말이 없다.

내일부터는 그만 미루고 회사에, 가족에게, 이주를 고백해야겠다.

할 수 있다면.

2052년 5월 21일

일을 그만두고 쉬는데 오히려 일 할 때보다 마음이 바쁘다. 그래도 죽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가? 원가를 막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이 생겼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식물을 파는 곳이 줄었다. 이상기온으로 살아있는 식물을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때문일까? 20대까진 그래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씩 파는 곳도 있었는데.. 목숨 값 팔아 사치를 부릴 자격이 있으니 살아있는 식물을 살 것이다. 아주 전까지만 살아있어 주라..

2052년 5월 21일

결국 친구들한테도 이데아에 간다는 얘기를 못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이라도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하는데
처음 이데아에 갈 결심을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이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새로운 나에게도 그런 경쟁을 또 시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지금의 나는 나름 과거의 열등감을 극복한 것 같기도.
일단 집에 남은 술 좀 먹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어떤 내가 될지.

2052년 5월 21일

"Risk: 리스크(risk)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특히, 금융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스크란 용어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서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위험(danger)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데아는 정말 흥미롭게도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내가 지원한 이유기도 하고)인간은 보통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아니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나에게 그 예외는 사랑인데 그거 완전 그 자체로 리스크여서 오히려 예외인가 보다. 하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는 긍정적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그게 재미란 말이야... 이데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문득 두렵기도 하다.

며칠 전에 쓴 나의 일기를 다시 보았다. "내가 30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지구든 이데아든 그 어디든지 세상이란 곳은 공평하고,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욕망하며 만든 인간의 이데아는 더욱이 완벽할 수 없다."

그래 재미를 찾자. 내일모레 있을 아주 대상자 모임에서 이 영감을 나누고 와야겠다.

2052년 5월 22일

통장 정리를 했다. 오랜만에 숫자 놀음을 하느라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끝이 났다. 기분이 상쾌했다. 유언장도 작성했다. 남겨질 사람들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지 않아서 미안했다.

2052년 5월 22일

호르몬 변화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입맛이 갑자기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맛의 문제가 혀가 아니라 내 머리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자각하게 된다. 실제로 사람의 신체는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 사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말 인즉슨, 엄청나게 신 레몬을 한입 가득 베어 물고, 레몬의 과육 속에서 신맛의 액체가 흘러넘친다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와중에 혀에 고이는 침이 바로 그 사례다.

감각은 세계와 나 사이에 놓인 경계선이자, 관문이다. 여러 관문에서 세계는 나에게로 들어와 한 교차로 - 뇌에서는 섬엽이라고 불리는 그곳 -에서 모두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소실점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된다. 메타아의 돈으로 먹고사는 과학자들은 십여 년 전에 이러한 가설을 거꾸로 추적하여 의식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2052년 5월 22일

“제안은 우연(chance)이 하고 처분은 자연이 한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리듬도 역부족이고 최첨단 인공침대도 소용이 없다.

집에 심신안정을 위한 기계와 도구들로 가득하지만 불면증에 시달려 온 지 15년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불가능에 도전해왔다. 자폐 아이를 남편 없이 키웠고, 원치 않은 임신을 감당했고,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건너와 일본 여성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스테틱 문화를 선도했으며, 청담동에서 마사지숍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이데아 퍼퓸 에스테틱 회사까지 이루어냈다.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뤘다. 내가 못 이룬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설잠을 기어가듯 6시간 정도 못 잔 잠을 잤다. 꿈을꾼 나의 이데아.

발 밑은 아침 새벽 찬 공기에 이슬이 맺힌 잔디밭이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쁜 아기와 남편, 그리고 작은 정원의 집.

봄나물을 캤더니 벚꽃이 피었고 지더니 초록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나 우리 집 그늘을 만들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경이롭고 행복했다.

그리고 농익은 해가 저물어갈 때는 단풍잎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드높은 하늘을 바라봤다. 밑에서부터 위로 불어오는 자연의 바람은 남편과 아기 함께 포옹할 수 있게 만들었고 집 안으로 인도했다. 작은 장작을 때는 소리에 창밖에 눈이 왔다.

눈을 보러 나가 먹어도 보고 비벼도 보면서 함께 웅굴었다. 그렇게 4계절을 6시간 동안, 사경을 헤맸고 꿈의 저편부터 침대의 흥건한, 땀 묻은 내 신체까지 잘 넘어왔다.

그러곤 평평, 눈물이 쏟아졌다.

펑펑 울고나니 너무나 그리웠다.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에, 리 툼 한주먹을 먹고 누웠다. 멍하니 침대의 은은한 엘이디 불빛에 기대어 생각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를 갈며 평생을 갈고 닦아 노력해온 삶인데 어쩜 이렇게 달을 수 없는 저 반대편의 행복을 찾아 여기까지 왔을까, 정작 살 가움도 미소도 잠도 잘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라니. 이 빈곤이라면 굶어 죽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내 이데아가 이렇게 단순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절이 없어 졌을까.

왜 늘 정지하거나 후퇴는 하지 않고 공격만 하다가 결국 인간임을 방어하는 꼴이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럼 누군가는 물을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가라고.

‘이제 자연은 없는걸… 예나 자연이란 말이 있었지.’

2052년 5월 22일

어제와는 다르게 마음이 바빠도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난 아마 아주 전까지 삶을 낭비하며 살지 않을까? 이러니 난 외롭게 산 것이 아닐까? 습관적인 자기 비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지만 뭐 제일 익숙하기도 하다. 이런 날은 꼼짝없이 있기보단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잘 안다. 이런 대처방법을 고안한 것이 내가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제 움직이는 곳이 이데아 안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지만 말이다. 30년전, 푸른 녹음이 있던 선선한 여름밤이 그립다. 다시는 가지 못 할 그런 것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 오늘은 이데아 안에서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다. 고요하면서도.. 내 안의 소리만 시끄러운 이곳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난 이주를 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게 아닐까? 메타아에서 세워준 우리가 이주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저 커다란 고물에게 그 어떤 느낌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2052년 5월 22일

생의 마지막 날을 준다면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스스로 수도 없이 던진 질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보낼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다지 별 난 하루가 될 것 같진 않다.

평소 내가 자주 가던 식당과 카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마치 내일도 맞이할 사람처럼 서로의 세상 사는 얘기를 하겠지.

달라질 게 있다면 이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더 담아보려 눈이나 열심히 굴리고, 호흡기 없이 나가 심호흡 몇 번 해 보고, 자외선에 타들어 가는 피부의 따끔거림을 느껴 보는 정도 되려나.

약 30년 전 방문했던 스위스가 생각났다. 만년설의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면 그렇게도 시원하고 상쾌했었는데. 이젠 그곳의 공기도 아주 농눅해졌단다. 더이상 녹록지 않음을 느낀다. 내 모든 기억이 이데아와 함께할 수 없겠지. 이데아의 순간에선 이 모든 기억이 데자뷔처럼 낯설지만은 않았으면 한다. 50년 동안의 꿈이었다고 하자. 이데아에서의 삶은 더욱 영원할 테니.

2052년 5월 22일

2052년 5월 22일

Being/Charming/Eternal Life?/etc..

존재/매력/영생?/등등..

이데아에서의 나의 존재는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지금의 삶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온 이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선물 받았으니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달을 수 있겠지.

결국 또 시간이네

이데아에서의 목표가 구체화 되어간다. 많은 사람의 시간을 벌어주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삶을 종료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이데아를 구축하자.
그리고 시간이 확장된 만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다.

2052년 5월 22일

그럼 어떻게 나를 디지털 상에서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기술로 보자면 본체에 존재하는 자아가 디지털 세계로 확장한다는 개념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나를 구성하는 본체가 다제털 상에 존재하게 되어 구성될 수 있다면 분명 현실세계의 무언가를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안된다는 거지? 이후에는 서비스를 해주려나?…

2052년 5월 22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엄청나게 와있었다. 어제 집에서 혼자 술 먹다가 술김에 싸이월드에 이데아에 간다고 글을 올렸나 보다…

나만 볼 수 있는 내 다이어리에 쓴다는 걸 술취해서 다른 풀더에 넣어버린것 같다

와 진짜 왜 때문에 싸이월드는 쓴 글에 대해서 삭제가 안 되는 기능을 넣었을까

한편으론 언젠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니 잘됐다는 생각이 듈다.

2052년 5월 23일

What a weekend! I'll try to recount the major details accurately.

It started normally enough. I was at my local juice bar on Friday after work for a few tumblers of mycelium-ether, you know an average office worker's start to the weekend, trying to forget about the depressing numbers on my console. About halfway through my second drink, when the dimensions were just starting to separate, a strange cloaked figure sat in the bar stool beside me. At first I thought it might have been the fungi kicking in, but I realised this person was in fact looking at me through voxels instead of eyes.

'Haei' The figure spoke plainly and directly 'You are in danger, carbon based lifeform'.

'What are you?' I replied.

'27.142-B' The figure informed me. 'I received a wire from the Postman, you are about to make a decision you will regret. Please follow me.'

I can't remember exactly what was said after that, but next thing I knew I was stepping into a nondescript vehicle parked in a nearby alleyway. The interior was not what I expected from the very normal looking body of a B series EV I had entered. The entire inside was a mesh of circuitry, LEDs and cables, there were no seats or navigation interfaces, at least that I could notice. My new companion slid effortlessly into a side panel, literally becoming one with it. I found a space with the least amount of electrical innards I could, and took a seat. Just as I did, a voice filled the car.

'You are planning to migrate to Idea, is this correct?' Again no emotion in the voice.

'Yes... Well, I signed up for the Beta test, it starts in two weeks'.

'Are you aware of the results of Idea's Alpha program?'

'Um, not really. I heard it was all carried out as a simulation, no humans were actually transferred.'

'Incorrect. There were 10 of us.'

At this point my mind was overrun with questions. We had been told the program was never tested with real humans before but that the simulation had a 100% success rate in all data based trials. What was I getting into?!

'But then how are you here, right now? I thought the migration process was final'.

'I am not. I am inside my Idea. This vehicle and mech suit allow me to communicate my physical presence to the carbon world'.

'But, how can you control them, how are you able to see...?'

'The Postman has access to technology beyond the capabilities of Meta, their technology is flawed and insecure. With the right key their walls are mere clouds of pixels. Let me show you.'

At this point I lost consciousness, what that thing did I'll never know...

2052년 5월 23일

나의 이데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막상 가려니까 역시 떨리긴 하나보다.

2052년 5월 23일

.....
.....
.....

2052년 5월 23일

오늘은 나와 같은 이주자들을 찾아보았다.
정보가 많이 드러난 사람..혹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할머니..할아버지..아줌마..아저씨..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
정말 다양하다.

2052년 5월 23일

오늘은 본격적인 시작이란다…죽음을 향한 시작이라니 뭔가 친밀하면서 묘하네…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8명의 사람이 앉아있었다. 8명이었나? 말 많은 한 사람이 대체로 이야기의 화두를 열어가는 듯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조용한 듯했다.

분명 돌아가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메타아’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로는 지급된 금액의 2배인 1400만 불을 지불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가지 않는 걸까? 사기꾼이 분명하다…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대답을 하기보다는 자꾸 기술팀을 운운하면서 ‘추가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했다. 역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죽음에도 아니… 종료에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왔군… 아니… 지금까지 그 래 왔던가?

2052년 5월 23일

사고로 피부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여태껏 무조건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모기에 아무리 물려도 가렵지 않다는 것. 며칠 씻지 않아도 별로 찝찝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감각의 상태도 온전하지 않은 나는 청각은 보청기에 의존하고, 시각은 도 수 높은 안경에 의존한다. 그 덕에 지난 십여 년간 후각과 미각이 예민하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지난 삼 년간의 항암치료 탓에,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다.

의식은 감각이 하나로 모이는 교차로에서 생성된다고 하는 이론은, 나의 경우, 나의 존재 자체를 불가사의한 것으로 만든다. 눈을 감고, 감각들을 떠올려보면, 내게 다가오는 감각들은 모두 과거의 것들뿐이다. 마치 우리가 만들어진 기억을 통해 가상의 과거를 삶에 편입시키는 것처럼, 나는 과거의 감각들을 소환하여 가상의 현실을 여기서 끊임없이 만 들어내는 셈이다.

2052년 5월 23일

이주 프로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불참하게 되어 매우 아쉬웠지만 바로 오늘! 워크샵에 다녀왔다.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생각이 있음에 흥미를 느꼈다. 지구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닮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 불안감.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화 되겠지.

마음에 들었던 점은 나푸름 박사님이 섬세하게 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똑똑한 메타아..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니깐.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했었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지구에서의 삶의 종료에 대한 불안감이 워크샵을 통해 조금 해소되는 하루였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맞으니까 묵묵히 전진해보자!

2052년 5월 23일

어제오늘 온종일 전화만 받다가 하루가 다 갔다. 드라마 감독님부터 기자들, 헤어진 전 남친도 전화 오고 보람이도 연락이 왔다. 내 15년의 경쟁상대. 이데아 가기 전에 만나자고 하는데, 사실 목소리 들으면서 그때 그 감정들이 떠올라서 갑자기 속이 너무 울렁거렸다.

나 혼자 옛날 추억 미화하면서 내 마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얼굴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한번은 만나야 겠지.

2052년 5월 23일

오늘은 너무 바빴고 두 번째 래빗홀 미팅이 있어서 잠시 강남에 다녀왔다. 여럿이서 모여 앉아 메타아-한국지부 책임자와 정신과 담당 상담선생님이 모여 협약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래도 2시간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나를 통하여 현재 내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

다행히도 메타아는 뱃속의 아기를 나와 같이 동일시하여서 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메타아 측에서는 내가 죽어도 아기가 28주에 태어날 수 있도록 제왕절개 수술과 영양 공급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럼 이 아이는 뉴-이데아로 아주한 엄마를 둔 첫아기가 된다.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시금 남은 이 세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2052년 5월 23일

오늘은 아주 대상자들과의 미팅이 있었다. 아주가 모두의 같은 목적과 수단이 아니었음에도 우린 모두 이데아로 가는 길로 통하고 있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을 두고 갈 연습을 위해 방문한 곳에서, 또 그러할 미래를 말하는 내 모습은 걱정만큼 힘겨워 보이지 않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방감. 창문 하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감정이었다.

2052년 5월 24일

Bilingual 설정이 가능한지 여쭤봐야 했는데 깨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능하면 2, 3개의 모국어를 구사하고 싶은데 말이다. 이것도 추가 요금이 필요한 설정이려나.

2052년 5월 24일

이주 협약서를 받았다. 답하기 힘든 질문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다. 왠지 옛날에나 물어볼 법한 것들이다.

2052년 5월 24일

늦잠을 잤다.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 뒤척거리다 다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벌써 8시가 넘었더라. 그런데 또 안경을 찾느라고 30분을 해맸다. 시력이 좋지 않은 나에겐, 안경을 떼어버리면 하루가 아주 곤란해진다. OS의 수면모드를 해제하자마자, 단체 방에 아내가 찍어올린 영상들의 알림이 십수 차례 울렸다. 코펜하겐에 가는 것이 삼십 년만인데, 그것도 전시 일로 가게 된 것을 아내는 무척 기뻐했고, 나도 그것이 기뻤다. 도시가 참 깨끗하고 예뻤던 기억이 난다.

아내는 이번 전시를 지난 6개월간 준비했다. 생물로서 내가 아내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전시이기에 당연히 가려고 했던 나는, 그리고 아내는 이주 1달 전부터는 거주지로부터 출국이 금지된다는 메타아의 협약 안내서를 받고 황당해했다. 전시를 앞당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지난 토요일에 출국했다.

2052년 5월 24일

온종일 거의 100명 정도의 기자를 만난 것 같다. 이데아에 가는 게 이렇게 특종인가 싶다. 언젠가는 모두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하다 보니 내가 왜 현생을 종료하고 이데아로 가는 선택을 했는지 나조차도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그때 그 영업맨이 말을 아주 잘했나? 아니면 내 과거의 감정들 때문에? 난 지금 괜찮은데 뭔가 혼란스럽다. 받은 돈은 벌써 꽤 많이 써 버렸다.

2052년 5월 24일

몸에 무리가 왔다. 이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
뱃속의 아기는 커가지만 내 피부 가죽은 얇아지고 있다.
수면 부족에 엄마라는 압박과 이주행의 설계의 고통.
절실한 3주.

현재 과로로 쓰러지거나 빈혈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네 그러고보니. 잠시 위빠사나 명상센터 캡슐에 접속해야겠다.

일 . 시. 정. 지

2052년 5월 24일

이주를 택한 이유가 뭐였더라. 미팅 이후, 특히 박사님과의 면담 후 골이 깊어졌다. 자연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날 더 강하게 끌어들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적절히 인간미 넘치는 핑계 혹은 빌미로 적당하다 싶다. 타인에게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기에도.

이곳에서 잃은 것이 아닌, 가져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갈구였던 것 같다. 난 언제나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자 나를 억누르며 부단히 노력했으니까.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따른 기준 같은 게 있었다. 당장 몸에 난 생채기의 아픔보다 나중에 절단하기가 더 괴로울 거라 선택한 순간에 발동했다. 내가 이 데아에서 기대하는 건, 그럼에도 후자를 택하는 내가 아닐까.

2052년 5월 24일

물질로 구성된 나를 두고 나는 과연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원자가 나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었다면… 이제 원자를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겠지? 잠깐의 망상을 하다보니 전시장에 도착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전시가 마무리되어간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전

시장을 찾아주고…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시장을 드나드느라 정신이 없다.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알아가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몇십 년…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아마도 나는 꾸준히 지금까지 하나를 올 곳이 해온 사람으로 비추어 졌으면 했다. 어찌 보면 내가 이 행위를 이어갈수록 점점 나의 명예와 위상도 점점 높아질 테니까.

우주의 먼지에 명예와 위상 그리고 돈 그리고 사상과 철학이 뭐가 중요할까? 하지만 반대로 무한히 작은 존재인 내가 있기에 세상도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래도 그중 하나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소중한 사람들도 다 그대로 세상도 다 그대로 내가 작업하는 패턴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하지만 돈…지금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고 있고 그만큼 작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만약 내가 돈이 정말로 많았다면… 분명 더 많은 경험과 한계가 없는 거침없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우주의 먼지 따위가 그깟 숫자에 연연하다니… 시스템이 이렇게나 무섭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인위적인 시스템 안으로 나를 맡긴다…

2052년 5월 24일

이주 한 달 전. 나를 버텨주었던 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보려고 한다. 22년도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 집단감염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COVID-19 감염증에 걸린 나는 인큐베이터에서 자랐다고 한다. 황달과 4.3 kg의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태어나 신생아실과 신생아증환자실의 경계에 서 있던 나의 몸은 모유도 먹지 못하고 분유만 먹고 자라난 불쌍한 존재이다.

가혹한 주인을 만나 30년간 고생만 한 나의 몸. 왜 이렇게 몸에게 자비를 주지 못하고 항상 가혹하게만 살아왔는지.. 운명 자체가 바쁜 운명인 걸까. 아무래도 이데아로의 이주도 물어볼 겸 사주를 한 번 보러 가야겠네...

너의 주인은 이기적이다. 술 마신 다음 날 너가 힘들 걸 알면서도 현재의 즐거움에 올인하지를 않나. 자기가 영유할 시간이 20시간도 모자란다며 너가 좋아하는 수면시간을 4시간 이하로 할당시키지를 않나.(미안, 어제랑 그저께 이를 동안은 2시간씩 밖에 못 줬지..)

Calm Down 하라고 훌린 너의 눈물(땀)을 제쳐놓고 쉴 새 없이 흥을 즐기지 를 않나. 술 처먹고 좀비게임 하다가 다리를 헛디뎌 부러지지를 않나.

에효. 나의 몸아

직접 써 보니까 너 고생 정말 많았다.

한 달 동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테니 조금만 더 힘내자!

2052 5월 24일

오늘은 드물게 감정적이었다. 뭐 워낙 무덤덤한 사람이지만 화가 나는 건 참을 수 없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막 화를 냈다. 미친 사람인 줄 알겠지? 어쩔 것인가. 내가 하겠다는데.

박사와의 짧은 만남에서 이데아로 간 후에 어쩔 것이냐는 말을 들었다. 정곡에 찔린 느낌이었다. 난 이데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보고 듣고 아는 게 있어야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나한테

는 부재한다. 앞으로 한 달..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내가 원하는 게 생길까? 용기를 내 보고 싶다.

2052년 5월 25일

뉴-이데아에 가서, 뭔가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면, 출판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2052년 5월 25일

원래는 밖에 나가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손목에서 올리는 자외선 특보 알람에 단념했다. 대신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트레드밀을 가볍게 두 시간 정도를 걸었다. 예전에는 작은 네모 상자 같은, 당시에는 '테레비'라고 모두가 부르던 장치로 모두가 모여 영화를 봤었다. 테레비는 점점 커지는 동시에 한 편으로는 작아지다가, 어느샌가 안경처럼 쓰게 되었다.

나의 대학원 졸업작품은 우스꽝스러운 커다란 모자-안경을 쓰고 지금처럼 트레드밀을 뛰는 일이었다. 나는 안경 속 화면을 보고 뛰느라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화면을 보면 너무 어지러워서, 나는 눈을 감고 뛰었다. 발바닥의 감각을 잃은 지가 몇 년인데, 갑자기 문득, 맨발로 트레드밀을 퍽퍽 소리를 내며 달리던 그때의 오래된 감각 기억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환되었다.

2052년 5월 25일

보람이를 만났다. 우리가 매일 수영하던 성수의 수영장 앞에서.

보람이도 수영선수에서 은퇴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엄청 행복해 보였다. 아, 수영장에서의 나의 역할은 옆에서 행복해하는 보람이를 항상 지켜보는 것이었다.

갑자가 보람이에 대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막 솟구치는 느낌이었다. 왜 나는 항상 2등이었을까? 왜 항상 나는 행복을 지켜보기만 하고 느끼는 순간을 갖지 못했을까.

내가 이데아로 떠나더라도 남은 김보람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심했다. 떠나기 전에 죽이기로

2052년 5월 25일

빛바랬지만 선명한 기억 속에, 많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에서 만났고, 대화가 잘 통해서 실제로도 몇 번 만나게 되었다. 이후 서로 취업 준비다 뭐다 바빠서 연락은 점점 뜯해지긴 했어도 이따금 서로 안부를 묻고자 연락할 때면 옆에 있는듯했다.

사고뭉치 신입 사원끼리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날 따라 내 말 한마디마다 리액션이 다르고, 갑자기 이상형을 묻지 않나, 원래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갔나,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진 편지를 꺼내기 전까지는.

저번 미팅 때,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말했었다. 내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의 열쇠, 이를 토대로 크고 작은 틀이 꾸려질 것이다.

2052년, 이주하는 날을 기점으로 내 현세는 막을 내리기로 한다.
사후 세계가 있고, 이데아가 있다.

2052년 5월 25일

오늘은 배관 수리공으로서의 마지막 날이다. 한 가정집을 방문하여 간단한 배관 교체 업무를 하고 나오니 웬지 기분이 묘했다. 성인이 된 직후 시작하여, 한 번도 직업을 바꾸지 않고 8년간 일을 하였다. 물론 권태로 가득 찬 일상이었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 없다; 디바이스를 통해 매칭된 직업이었기 때문일까?

새로 온 신입 로봇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다. 처음 이 직장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인간이 과반수였지만 작년부터는 대다수가 로봇이다.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가정 서비스 로봇도 단가가 저렴해져, 업자에겐 인간보다는 로봇을 채용하는 게 이득이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인간 상관들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흄. 뭐 이제는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2052년 5월 25일

‘오늘 나는’ 전시장에 갔다.. 전시장 옆에 있는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먹었다. 아무 맛있었다. ‘오늘 나는’ …어렸을 적 나는 제법 좋은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 다른 가정을 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래서 과학, 글쓰기, 속독, 바이올린 등 각종 다양한 과외들을 받았는데 글쓰기 선생님께서 내가 쓰는 일기를 보고 지적한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는’으로 일기를 시작하는 버릇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오늘 나는’으로 시작하는 일기를 쓴 적이 없는데 이 요란스러운 시스템에 대한 반항으로 ‘오늘 나는’으로 시작을 해보았다.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정의를 추구 하지만 시위를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시스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작업은 희망적이고 사랑스러웠다. 아마 저항에 대한 반작용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저항에 대한 반작용…음.. 작품 소재로 괜찮겠군…

내일은 전시의 마지막 날이다.

2052년 5월 25일

나는 명리학이나 별자리, 타로점, 신점 등의 운세에 흥미가 있다. 나는 보통 큰 선택을 하기 전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운세를 보는 편이다.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라는 내 인생의 종료이자 큰 도약인데 운세를 안 볼 수가 있느냐고!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알게 되어 지금까지 나의 큰 일들을 점쳐주고 조언해주신 명리학 박사님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은 H. 내가 태어났을 때 직접 나무를 손수 조각하여 그 누구보다 멋진 도장도 직접 만들어 선물 해주신 박사님. 내일 때마침 쉬는 날이니 H를 만나러 가봐야겠다.

2052년 5월 25일

위빠사나에서 108배를 진행했다. 백팔 배를 하고 나니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와 무릎을 가누지 못하는 나를 들려업고 안았다. “엄마,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아들. 그 순간 전기 코드를 뽑듯 위빠사나에서 오프됐다.

현실로 돌아와 깨보니 땀이 흠뻑 사무실 체어에 달아 살이 찍찍하게 미끄덩거렸다. 그리고 뱃속에서 쿵쾅거리는 딸. 배를 어루만지고 움켜쥐며 심호흡을 했다. 눈앞에 놓인 옥스퍼드 노트. ‘이주’, ‘새 삶’. 이라고 쓰인 두 단어.

알고 있다. 18살로 돌아간다면 나를 괴롭혔던 그놈들을 죽이고 그곳으로 내몰았던 그 년들을 똑같이 만들어줬을 것이라고. 그때 나도 같이 사라졌다면.. ‘그냥 도피’라고 쓰고 지워본다.

막상 가려니 아들이 눈에 밟힌다. 혼자 이 진흙탕 게임에서 빠지는 기분이다.

아니 내 뚱까지 아들에게 씌워주고 가는 기분이랄까…

딸은 이 지구에 남겨두는 내 새로운 자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그렇게, 난 뉴-이데아로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 걸까?

2052년 5월 25일

뉴-이데아 말 그래도 ‘새로운, 초월적 실재’

어렸을 적 이데아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며 이 어려운 관념을 이해시켜주기 위해 선생님은 이데아를 구름으로 표현하셨다. 구름이 된 이데아는 사람 모양의 사람에게 화살표 지어졌고 이게 곧 소피의 말이라 설명해주셨다.

나중에 가셔야 자세한 이데아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나 어릴 배운 구름 모양의 이데아는 잊히지 않았다. 나는 1년 동안 4번의 시험에서 전부 100점을 받았다. 이제 사회, 철학과 같은 것들은 수학, 과학에 밀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학문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나는 수학, 과학을 못한다는 이유로 열등아로 분류되어 배움의 기회마저 차단당했다. 이제는 내가 콜센터 직원이면서도 항상 원가를 갈구하고 어려웠던 것이 내 마음속 구름 모양의 이데아 때문일까?

난 항상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5살 이후부터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났다.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와 깨끗한 자연이 잊히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고 불과 5년 사이, 오키나와는 점점 물에 잠겨가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한국으로 보내질 당시 오키나와의 10%가량이 물에 잠겨버렸다. 54살이 된 지금 시점에서 오키나와란 섬은 절반 크기로 작아졌고, 내가 추억하던 그 모습은 더 이상 그곳에 없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곳이 오키나와 아닐까?

2052년 5월 26일

또 늦잠을 잤다. 깨고 나서도 한 30분을 일어나지 못하고 뒤크이던 종이었는데 현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화들짝 일어났다.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요즘은 대단히 특이한 일이 되었다. 나는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는데 그는 뒤를 돌아 벽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자신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 나는 친구 누구이냐고 물었고 그는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 짧은 몇 초의 시간 동안 오만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2052년 5월 26일

나는 내가 이주를 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물론, 미디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다행히 아직 내 주변 사람들은 ‘이주’라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광기 어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인간관계가 아주 좁았다. 가까운 가족 그리고 두어 명의 친구. 많은 사람을 대할 일이 없어 스스로는 만족했고, 이따금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말썽을 부린 적은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물리적 세계에서 소멸하는 이주의 개념은 누군가에겐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좁은 인간관계는 상처의 반영을 줄인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을지는 나도 모른다.

2052년 5월 26일

대구에 들를 일이 있으면 연중행사처럼 뵙던 박사님은 여전하시더라. 이데아가 한창 떠들썩한데 산골 동네들은 관심도도 저조하고 여전히 자급자족 농경 사회 느낌이다.

일단 박사님에게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 테스터임을 밝혔다. 좀 놀라시는 듯 보였다. 일단 이번 달 운세를 여쭈어보았다.

2052년 5월 운세: 전체적인 운이 하락한 시기입니다. 지금 만족스러운 운이 아니지만, 이 시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성이 생기더라도 다소 거리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과 감정이 서로 어긋나고 때로는 친구인지 애인인지 모르는 어정쩡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이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하여 위장에 탈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와 장애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음식을 먹어도 계속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인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포부와 안목을 가지고 취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적 제안에는 신중을 기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주변 사람

들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이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 입니다.

-> 아무래도 떠나는 운세가 나왔으니 이데아로 향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하신다. 하지만 아주 협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 ! 노력을 하면 잃을 것도 지킬 수 없으니 열심히 땀 흘릴 것 !

2052년 6월 운세를 여쭈어보았더니 6월 1일에 다시 방문해줄 수 있겠냐고 하신다. 아마도 이데아에 대한 혼자만의 정리가 필요하신 듯하다. 6월 1일을 연차 내야겠다.

2052년 5월 26일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052 5월 26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논란. 메타-훌릭 CEO 나가사와 미도리, 폭력에 신음하는 친자 아동 학대의 용의자로 밝혀져”라는 기사가 떴다.

회사에 빗발치는 전화가 쏟아졌다. 회사 밖, 집 밖은 온종일 메타-훌릭과 나를 겨냥한 시위와 눈총으로 시끄럽다. 아동학대 진실을 파헤치라는 인권 단체는 인터넷으로 회사 서버를 공격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 죽치고 있다.

이데아에서는 메타-훌릭 퍼퓸의 콘텐츠와 제품의 보이콧이 시작됐고 회사 주가는 미친 듯이 폭락했다.

2052년 5월 26일

지연으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받았다. 보고 싶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 나도 보고 싶을 거라 대답해주었다. 그렇지만 이데아에서의 내 인생에 그 친구가 그대로 존재하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그리워하는 건 누구일까. 뭔가 일방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2052년 5월 26일

이주 협약서를 작성 중이다.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본 지가 언젠지, 한참을 고민한 문항들도 여럿 있었다. 좋아하는 노래, 스포츠 등 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 덕에 답할 수 있던 것만 봐도 난 도저히 혼자는 못 살겠구나 싶었다. 아무래도 내 이데아는 활기 넘치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이뤄야겠다. 이주 협약서를 작성하며 이데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2052년 5월 26일

일을 그만둔 뒤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게으르게 늘어지던 중 이데아로부터 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이다. 난 기대를 하고 이데아에 접속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별거 아니었다는 듯이 서둘러 말을 맺었다.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나는 구차하게 말을 이어나갈까 고민하다가 접었다. 이전과 같은 연결되는 것 같은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리려다가 다시 닫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데아로 이주하면 이 사람을 내게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모든 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한 번도 안 싸우는 관계. 내가 선을 지키면 그만큼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선을 지켜주는 상대. 나를 단 하나뿐인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해주는 상대.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2052년 5월 26일

오늘은 전시의 마지막 날. 마감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가득했고,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다. 시간이 흐른다면 그것이 아무리 느리게 흐른다 한들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겠지? 하지만 이 순간순간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면 나는 무한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느끼는 1년이 1억 년이 될수도 그리고 그 1억 년이 1000억 년으로 확장되고 계속 줌인해간다면 영상편집 프로그램의 타임라인을 확대하듯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려나? 멈추어있는 세상이 얼마나 크게 의미 있을까? 그 순간의 조각들이 모여 함께 구성되어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시간은 유한하고… 그 유한성을 것을 깨는 개념이 디지털로의 이동이 될 수도 있겠군…

바로 내가 그 시작점을 여는 ‘무언가가’ 되는 거야!…

나는 무엇으로 변환 되는 걸까?

2052년 5월 27일

일을 그만두고 나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지난 일을 곱씹게 된다.

2052년 5월 27일

뉴-이데아로 이주한다는 소식까지 일파만파로 퍼져 이미 어젯밤은 날 가지고 이주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 각종 에스엔에스와 전광판 옥외광고 등에서 뉴-이데아로의 나가사와 미도리 이주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갑을 논박이 이어졌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나는 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아무렴, 내가 아동학대를 했든 안 했든 벌은 달게 받을 것이었다. 이미 모자 관계로 해독의 과정이었다..

어젯밤 아들은 나를 피했다. 그 아이가 받고 있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왔다.

이 세상에 자식과 부모 간의 적대감 없는 정상 가족이 있기나 한가? 어쨌든 나의 유일한 삶의 친구, 내 아들이 나를 피했다.

그렇게 회사는 긴급회의를 주선해 주주들을 모았고 이번 사건으로 급락한 주가와 이주 후 경영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는 독촉 메시지가 왔다.

집에 웅크리고 앓아 흠 아이오티로 아들의 방을 봤다.

“아들.” 위를 올려다보는 아들의 눈이 벌겋더라.

똑똑똑.

드디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괜찮니?”

2052년 5월 27일

어제 영석이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갔다. 내가 이주한다는 사실을 건너건너 듣고서는 찾아온 것이다. 내가 이주한다는 사실을 딱히 특별하게 비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한테도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이미 없어진 지 꽤 되었고, 딱히 누구한테 말하려고 해도 그럴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나의 이주사실을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은 국세청 직원이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알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국세청 직원은 나의 이주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주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서른두 명에 불과하니까. 그 자체로서 대단히 가십거리다.) 우연히 국세청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영식이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다. 영식이는 처음에 긴가민가하다가 나의 SNS를 찾아봤고,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그 조형물’ 게시물에 하트 표시를 한 것을 발견하고는 혹시나 해서 찾아온 것이다.

영석이를 본 것은 거의 십 년 만이었다. 정확하게는 11년. 그 사이에 우리 둘 다 외모가 많이 변한 것을 서로 알아차렸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는 웃기로 했다.

2052년 5월 27일

오늘은 생일이다. 약속된 것도 없는 평범한 나날일 뿐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콜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으레 하는 인사치례가 돌아왔다.

“생일 축하합니다.” 뒤에 붙은 말들은 쓸데없는 말들이었다. 이데아 속 사람들은 생각보다 건조했고 깊이 정을 주진 않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의 영혼 없는 축하보다 기쁜 것은 그래도 55살은 채우고 이데아로 이주한다는 것이려나? 54살보다는 55살이 더 좋다. 이유는 없다.

사실 어제부터 연락 온 그 남자에게 한 번 더 말을 걸까 말까 고민이 된다. 앞으로 한달 뒤,, 이제 한달도 안 남은 나의 이주 전 마지막 날에 볼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이전에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묘하게 차가워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2052년 5월 27일

내친김에 지연이를 연달아 만났다. 둘이서 참 자전거를 많이 탔었는데라며 추억 회상을 하다 마지막 라이딩을 가게 되었다.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강이 가까운 곳, 적어도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싶었다.

2052년 5월 27일

전시가 끝나고 다시금 허무함이 찾아왔다. 작가 활동을 한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 기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래 이런 것이겠지? 전시가 끝나고 나니 다시금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나마 아주에 대한 생각으로 부담이 다시 밀려왔다. 내가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떡하지?

지금까지 일기를 작성하는 내내 나의 이야기만 적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일까? 보통 평소에는 다들 그럴까?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적는 것이 어색하다.

2052년 5월 27일

기대하고 기대했던 서울 재즈 페스티벌! 메타아사에서 초대해줘서 일분 만에 전체 매진된 곳에 내가 가 볼 수 있게 되었다...(티켓팅에 개같이 멀망했었는데... 역시 메타아..난 메타아-믿어요.. 메타아-항상 감사합니다..) 나도 어릴 적부터 다니기는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인기가 대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가상과 현실의 조화를 참 잘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AI 뮤지션들과 실제 아티스트들과의 무대... 정말 완벽했다. 아무래도 비대면이 대세라지만 현장에서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땀을 나누는 느낌과는 좀 다르지.

내가 서재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먹거리, 체험 부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메타아 사에서 협찬한 페스티벌이라 그런지 “이데아 체험 부스”가 있었다. 물론 초대권을 받고 간 나는 바로 입장할 수 있었지. 이데아

이주 오류를 감지해 줄 샌프란시스코의 ‘그 조형물’ 미니어처도 있지 뭐야! (잘 부탁한다..!)

근데 거기서 H 박사님을 만났다.

이데아에 대한 정리를 하시겠다더니..

이곳까지 오셔서 체험하시다니 난 나름대로 감동을 하였다.

H한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H한테 의존하고 싶고 궁금한 점이 많지만.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만 드렸다.

과연 박사님은 이데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2052년 5월 27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해왔다. 그럼에도 막상 이주협약 서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하자니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아주 어렸을 적 생애의 첫 기억부터 조심스레 꺼내 보아야 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기억이고,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 중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있다.

기억은 대개 미화되거나 망각된다.

이곳 50년 동안의 삶은 미화될 것이고, 이주 직전 지금의 기억들은 이곳에 기록된 덕분에 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의 기억들 모두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그리워할 날을 맞이하려나.

그럴수록 나의 이데아를 더욱 정성스레, 완벽히 만들어야 할 책임감이 든다.

2052년 5월 28일

공백.

2052년 5월 28일

어제는 페스티벌의 열기에 취했는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에 알이 배겨있다... 역시 다음날 출근인데 페스티벌을 즐기는 건 무리였을까... 이 짧은 하루 24시간을 128시간으로 늘린 이데아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 오늘은 좀 간만에 하루종일 쉬어보자...

2052년 5월 28일

여기에서 마지막이 될 원고를 마무리했다.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은 온전한 상태로 이데아에 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에 문득 걱정되었다.

2052년 5월 28일

우리는 그래도 자주 보기로 했다. 보통 같으면, 그래 다음에 언제 한 번 또 보자. 밥이나 먹자고, 이런 말이라도 할 법했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다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주 보기로 했다.

영석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눈치였다. 영석이는 오랜동안 간호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다고 말했다.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 육개장을 한 그릇을 쌌다. 미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도 오랜만에 친구와 한 식사라, 마치 맛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2052년 5월 28일

난 평생 고민만 하다가 사는 것이 아닐까? 계속 혼자 고민만 하다 보니 아주 마지막 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55년 동안 평생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와 급한 숙제를 처리하는 마음으로 덤벼들고 있다. 비장해지고, 슬퍼지고, 포기하고, 좌절한다.

2052년 5월 28일

음…우연히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주 오랜만에 춤을 추면서 즐겼다. 나는 곧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하는데 별로 크게 미래에 다가올 큰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사람들과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곳에 이주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언급될 뿐 그다지 크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아마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결국 나이겠지? 내가 없이도 세상은 잘 굴러가겠지?

2052년 5월 29일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뜬 눈으로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영석이가 갑자기 나타난 뒤로, 잠잠하던 생각의 바다 밑에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문득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근황에 관하여 보통 질문을 받으면, 그것을 좋다 말하며 추천하거나, 아니면 안좋다 말하며, 하소연하기 마련이다. 이주의 문제는 이보다 좀 더 복잡했다. 추천을 하려니 같이 죽자는 소리 같고. (나는 설득을 잘하는 편이라, 많은 친구가 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니, 나의 입장을 바라보는 친구의 입장이 다소 애매해졌다.

글쓰는 작가의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영석은, 천성이 다소 씨니컬한 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늦으면 글을 진지하게 쓰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오랫동안 해왔던 간호사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2052년 5월 29일

나는 자백을 하기로 결정했다.

2052년 5월 29일

이주협약서를 채워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주협약서에는 내가 어느 세상에 살고 싶은지 자세하게 쓰라고 되어있었다. 좋아하는 이야

기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쓰지 못했다. 난 생각보다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쯤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래도 예전 영화인 드라이브 마이 카와 아네트가 마음에 들긴 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살고 싶진 않다.

2052년 5월 29일

...

2052년 5월 29일

이주 협약서 초안을 쓰느라 생각이 좀 많아진 하루.

기본 질문에서부터 나의 이데아의 환경 설정을 위한 질문까지 오롯이 나를 위한 질문들.

보통 우리는 대부분 현생에 치여살고 그러다 보니 나와의 시간이 우선순위에 서 밀린다. 애프터 라이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메타아-사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

생각해보니 지금 이 삶에 부와 명성과 시간만 더해지면 그게 이데아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 하루네. 부와 명성과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이데아 속 내가 되고싶다. 내일 있을 워크샵도 기대가 되네.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지.

2052년 5월 29일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렸다. 자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인간은 후회의 동물인가 보다.

이데아에서 부모님과 하는 식사가 이곳에서만큼 애듯하고 찡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다가도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싶고. 순환 논리에 빠진 것 같다.

2052 5월 30일

정신 상담을 받았다. 기존 담당의가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 바람에 이 심각한 상황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

잠깐 디지털 차단을 하고 집 밖을 나섰다. 비상 가드만 입고 정처 없이 걸었다.

다행히 집 밖은 한산했고 메타아와의 협의를 위해 한국을 떴다고 기사를 내둔 부분이 소용이 있었다.

2052년 5월 30일

Couldn't get onto the stream for the last week, we've been on lockdown in the bioregion due to a heavy front of acid dust typhoons. I can't be sure if this is just paranoia or there's actually something going on because there was no way to leave my unit to check with the neighbors. To be honest it's just as likely to be a data shortage, the faulty electrical systems in the building sometimes corrupt the stream, easy fix if you can get to the routing board in the

basement, but alas we're confined to quarters. At least my microgreen garden and protein printer stayed active.

One upside of being confined to your house for a straight week is there's plenty of time to ponder. I realise I left you on a bit of a cliffhanger last time, the warning sirens and shutters came down suddenly.

So, the encounter with 27.142-B. The next time I was conscious after passing out in the back of that car I was back in my apartment at sunrise, a few hours later the alerts started. There was a data chip sitting on my kitchen table, next to it a two word note, 'take this'.

So for the last week I've been wondering what this all means and perhaps whether it was just a figment of my imagination.

Things have been difficult since my partner was put into cryosleep, it's weird being alone in the house and that leads me to think too much.

We planned to be uploaded to Idea together with her consciousness being directly transferred from the cryochamber, but I can't do that without telling her what happened. What are we getting into?

If there was an Alpha program with real humans why would Meta want to hide it? I was already concerned about how much trust we are placing in them...

2052년 5월 30일

이주 협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주 협약서의 질문들은 대체 왜 이렇게 구성되어있으며 각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내가 궁금했던 질문을 뱉고 대화의장을 여는 순간 나푸를 박사님과의 개인면담시간이 다가와서 참가자들의 답을 듣지 못했다. 아쉬워...

그래도 나 박사님께서 나의 이주 협약서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코칭해주셨다.

이데아는 불행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스케치가 필요하겠다. 내 이데아의 환경설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되새기지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것도 같고. 인간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거 보면 지구라는 곳을 설계한 조물주가 있다면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설정 값에 넣어놨겠지.

면담 후 참가자들과의 free talking 시간에 이데아의 종료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인생의 한 시점에 멈춘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루프구나 다시 생각을 정립했다.

OK 루프 !

난 일단 이데아에서 첫눈을 뜰 때 여전히 30세의 박주은이고 80세까지 살 거야. 그리고 다시 0세부터 시작할 거지. 왜냐면 80세에 일시종료를 맞을 때 아쉬울 것 같거든. 다시 살아보고 싶을 것 같거든.

조물주가 만든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그대로 나의 이데아에 들고 갈 거니까 무조건 이 삶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2052년 5월 30일

오늘은 아주 대상자들과 또다시 만났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만큼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희망으로 가득 차 기뻐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자리 앉아있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지막 날 혼자 가진 싫다고 말하니 혼자가 아니라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놀라웠다. 내가 너무 마음을 닫고 있던 건가? 동시에 너무 고마웠다. 부담감이 줄어드니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2052년 5월 30일

이번 주말 내내 생각에 빠져있었다. 어릴 적 기억을 곱씹다가 다시 최근의 기억으로, 얼마 전 기억에서 다시 오래전 기억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이리 오래 생각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가올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 나는 머스크나 주커버그가 말하는 그 - 이데아라고 불리는 - 곳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기대’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아주든, 죽음이든, 탈출이든. 그 무엇을 바라보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두려울 일 없고, 실망할 일 없다.

할 말은 있지만.. 이곳에 적지는 않겠다.

2052년 5월 30일

늦었다. 뒤늦게 도착한 회의실에서는 아주 대상자들의 상담과 수다들이 오갔다. 다들 세상에 큰 마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곤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색했다. 이번에도 어디서 많이 본듯한 작자가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끊임 없이 질문공세를 펼쳤다.

2052년 5월 30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관련한 책들을 리스트화했다. 지금까지는 언어의 제약이 있어 한정된 자료밖에 읽지 못하였지만 이데아에서는 더욱 많은 책들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된다.

2052년 5월 31일

오늘은 24시간 중 24시간 깨어있었다. 어제 만났던 아주대상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을 훌자만 48시간이었나? 그렇게 오래 깨어있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인상 깊어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봤다. 맨날 잠을 청하던 11시쯤에는 너무 졸렸다. 차가운 커피를 연달아 2잔쯤 마시니 새벽 4시까지는 거뜬했다. 4시부터 8시까진 정

신력으로 버텨봤다. 그러다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오후 3시까진 돌아다니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5시까지 밖에 있다가 밥을 먹고 오후 7시에 잠을 청해본다.

2052년 5월 31일

전시를 보고 작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보통 집에있는 것을 좋아해서 전시를 보러 가는 경우는 드문데 내가 새로 이주하는 곳에서는 좀 더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다. 물론 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기억 같은 것은 인지하지는 못하겠지... 그렇다면 이건 희망 사항일 뿐 나는 이런 희망 사항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모른 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물론 환경을 바꿀 수는 있다지만 나는 그다지 큰 변화를 바라고 싶지는 않은것 같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2052년 5월 31일

내일 벌써 6월이네~ 정신없이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 일기를 쓸 시간도 부족하고. 6월 운세가 궁금한데 연락을 드릴까요 갈등되긴한다.
이렇게 운세에 조금 기대는 거 보면 인간은 참 미약한 존재이구나 싶다.

2052년 5월 31일

꽤 오랜만에 미술관을 다녀왔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작가들, 작품들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괜히 위기의식이 들었다. 다만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권위 있는 미술사에 가려진 작가에 대해 알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밖에.

5월 31일 2052

어제 집 밖에 나갔다가 기절했다. 너무 오랜만에 외부 활동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어서인지 털진 상태로 길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필름이 끊긴 상태로 이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다행히 지금 내 집에 뱃 속의 야기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데 깊은 안도를 느낄 따름이다.

더이상 일기를 쓰기 어렵다.

2052년 5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나의 계좌에는 내 평생 본 적 없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금액이 입금되었다. 웬지 모를 불안감과 긴장감에 일주일치 생활비 만 남겨놓은 다음,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 예약을 해놓았다. 웬지 나의 삶에서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래.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2052년 5월 31일

The winds are still blowing I guess, the shutters still haven't come up.

I received a message that I will be playing music for the Immigration party at Idea HQ a few nights before we are sent off to our new lives. Better pick out some of my old wax disks, it will feel nice to have one final spin with some tangible music.

I've decided that my mind is just playing tricks on me, the nerves of an old man.

2052년 6월 1일

만약 지금 내가 사는 세상조차 디지털 세상이었다면? 그럼 내가 다시금 이주하는 곳은 그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이주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 세계와 그 다음 세계가 또 존재한다면 윤회사상이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세상을 돌고 돌며 여행하는 여행자가 될 테고 기억은 필히 지워져야만 그 여행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몸이 늙어가는 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리셋되는 세상에서 성장이랑 무엇일까? 내 존재의 경험과 쌓아온 지식이 한순간에 소멸하여 새로운 나로서 태어난다면 그건 과연 나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는 진화를 거듭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컴퓨터의 포맷과도 같지는 않을까? 아 컴퓨터는 노화될 수 있으니 노화되지 않는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계속 포맷하는것과 같을까? 그렇다면 DNA 단에서의 진화도 별로 큰 의미는 없겠군...

2052년 6월 1일

지연이와 다투었다. 늘 그렇지만 소통 방식의 차이가 문제인 것 같다. 의사결정의 과정에 소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에는 그게 잘 안된다. 이데아의 나는 조금 더 배려심 있고 타인과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2052년 6월 1일

어제 7시에 자고 오후 2시에 깨어났다. 꼬박 17시간을 잔 것이다. 이게 시간이 더 아까운지도 모르겠다. 잠을 미친 듯이 몰아자서 그런지 피부 트러블이 들어가서 잠깐 기분 좋았다. 시간이 나서 병원에 아주 만에 갔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느냐는 말을 듣고 익숙하게 빨간 조명 아래 누웠다. 따뜻하고 기분 좋았다. 이제 정말 아주 가 한 달도 안 남았다. 며칠 전보다 오히려 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소소한 거에 기분 좋아지는데 아주라는 큰 결정을 하다니.. 그저께 만났던 아주대상자 중 한 명은 아주 후에 다시 메타아에 찾아가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아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창의력이 있으면 정말 재밌는 세상으로 아주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지금의 나 같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라는 사람의 유토피아란 참으로 척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크게 바라지 않아서 이 세상에 출곧 살아온 건 아닐까? 좋아해야 할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천천히.. 세심하게 생각해야지.. 일기를 쓰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그려지는 기분이다. 아직 서둘러서 5살짜리가 그린 그림 같지만 말이다.

2052년 6월 1일

오늘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2052년 6월 1일

정신과 의사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화가 나서 박차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주먹으로 그의 책상을 강하게 쳤는지 손목도 아려왔다.

지난 28일 자부터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이 훈미해 앓거나 눕는 것 이외엔 모든 정신적인 활동, 사무 활동까지

진전시키기 어려울 만큼 버거웠다.

이러다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아주 날짜까지 삶을 지탱시키기 어려울까
봐

두려웠고 뱃속 딸의 안전이 걱정 됐다.

정신과 의사는 급박하게 배정받은 사람으로 낯설어서인지 내 경계심이
컸다.

하지만 그가 내린 진단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허구를 믿는 병이라 임신도 사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인과에 연락을 취했다.

내 아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학대 시비와 고통은
죄책감이 투영된 허구이며 이는 꽤 오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지내온 나의 아들이 허구라면 내 주변인물 누가 과연 진실일까? 곰곰히 앓아 과거를 되돌아봤다. 어제일, 그제 일, 한 주전, 한 달 전, 만났던 사람들.

생각을 파헤쳐도 아들에게 발목이 끌여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자, 내 비서에게 즐겨찾기 1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말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에서 ‘엄마’임을 직감했다.

“누구시죠?”라고 물었다.

“오랜만이에요. 재빈씨. 당신의 구루죠.”

위빠사나 그루이자 수녀인 그녀는 내가 미흔모 센터에서 있을 당시 만났던 스승이다. 갑자기 재빈이라는 이름에서 그 시설의 냄새와 친구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일 년 정도 아들이 한 살이 되던 즈음에 나를 괴롭힌 여자친구들 중 한 명이 센터에 입소하여 함께 지냈던 생각도 났다.

“딩동딩동”

그때 집안 전체 차임벨이 울렸고 벽에 방문자 화상이 떴다.

익숙한 수행비서의 얼굴, 그때 막 센터에서 명인이의 앳된 모습과 이름 석자 정명인이 떠올랐다. 갑자기 온 살갗에 털이 셨다.

2052년 6월 1일

오늘은 간만에 off를 즐긴 날. 밀린 빨래도 하고 배달로봇한테 세탁소로 셔츠를 맡겨달라고도 부탁하고. 신경 쓰지 못 했던 집안일을 하는 도중 H한테 전화

가 왔다. 내일 만나자는 그의 연락. 궁금하면서도 두렵기도 한 내일이 될 것 같네.

2052년 6월 1일

Woken by warm sunlight streaming through the open windows. The sky is always so clear after a long storm, so I got straight outside to enjoy the weather. Work let me retire two weeks early, they were very understanding once I told them about my plan to go to Idea. So I spent the day speeding around the biome on the etram.

My favorite spot has to be the algae flats, just the thought that almost the whole biome is running off their energy and all its buildings are constructed from their mass is astounding. In the 2020s we used to dream about this stuff. Sunlight glinted off thin shards of fresh blue water as the etram glided over the sprawling webs of thick green organic matter.

It's days like this that give you hope for some kind of future, but they have been getting fewer and further between every year. I'm lucky I ended up in this region, I know others haven't been so lucky. I'm going to spend my last days in physical reality enjoying all it has to offer...

2052년 6월 2일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탓에 정신력이 바닥이 난 이 시점 중년이 돼서야
환각을 겪고 있다니.

2052년 6월 2일

로봇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제 로봇은 굉장히 일상적인 유닛이 되어있지만 그
작동원리와 과학적인 배경이 궁금했다. 역시 2시간의 워크숍으로는 크게 많
은 것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다. 나는
곧 이주하고 기억은 지워질 테지...

2052년 6월 2일

H와 만났다. 뉴-이데아에서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란다.

이데아에서 정신건강의학의 연구에 기여할 것이고 그 학문에 관한 공부를 바
탕으로 나를 아는 많은 사람한테 삶을 종료하기에는 세상은 매력적인 것들이
많다고 알려주고 싶다. 그곳의 나는 어차피 내가 이주를 통해 그곳에 존재한다
는 것을 모를 테니.

나의 6월 운세는 어떠냐고 못 물어봤다. 내가 그냥 듣기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이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면서
오히려 생각해보면 후련하기도 하다. 이 혼란과 혼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까.

과묵한 H에게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만나서도 불쑥불쑥 턱 끝까지 질문이 차올랐지만, 일단 그를 믿어보고, 이주에 들며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고 주어진 나의 하루를 살아가 보자.

2052년 6월 2일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한때 나의 공간이었던 곳에 들어와 살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상상해보았다. 책과 책꽂이가 많다 보니 집 빼는 게 조금 번거로울 것 같긴 하다.

2052년 6월 2일

뉴-이데아는 어떤 세계일까? 계속되는 의문은 내가 갈 세계인데도 궁금하다는 점이다. 메타아의 설명을 들어보면.. 뭔가 완성된 세계는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아는 만큼? 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는 뜻도 된다. 난 원하는 것과 내 현재의 삶이 괴리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데아를 항상 바라왔던 것이다. 근데 이데아를 내 손아귀에 준다는데도 똑같다. 뭘까 이 기분은?

2052년 6월 2일

오늘의 시공간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

2052년 6월 3일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라캉의 말이 생각난다. 나의 욕망에서 타인을 떼어놓고 보니, 내가 무엇을 욕망해왔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나'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해체된 패턴,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패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소실점. 그것이 자아인가?
한 십여 년 전에 사두고 맞추지 못한 퍼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꺼내두고 하루종일 맞춰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

2052년 6월 3일

자그마한 선물과 요리, 그리고 편지를 준비하여 지연이를 집에 초대했다. 알고 보니 내 사랑의 언어는 요리였나 보다. 역시 글로 내 생각과 미안한 감정을 정리하니까 조금 더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뉴-이데아의 개념을 글로 설명하고 있으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있었다. 영화 시놉시스를 쓰는 느낌이랄까.

2052년 6월 3일

이번 주말, 명인이가 아들 산소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납골당에 안치되어있는 아들 기일이 내일이라고 말한다.
난 매년 이 초여름에 아들을 만나러 간 기억이 없다.

2052년 6월 3일

그 사람과 연락 안 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었다. 같이 이주할 사람들과 만난 이후 그 사람에 대한 흥미가 급속도로 떨어져 버렸다. 역시 이데아의 사람보다는 현실의 사람이 더 좋은 건가?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했고, 더 대화 나누고 싶어했고.. 이런 기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데아에 데려갈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 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오히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버릴까?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불특정다수와도 소통하고 싶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을 만날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서 그런 건가? 사실 이런 마음이라면 이주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 어떤 사람은 더 배움을 얻고 싶어서 벤야민이란 사람이 살던 곳으로 가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을 한 명 구해볼까?

2052년 6월 3일

별거 없는 일상. 이주까지는 20일 넘게 남아있다.

묻고 싶다. H에게.

‘그 조형물’에 초록빛이 들어올지.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올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부모님을 비롯한 나의 지인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전할지도 생각해 봐야겠다.

2052년 6월 4일

지구에서의 하루는 24시간. 메타아 사에서 들은 걸로는 이데아의 시간은 128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코드값이 많이 들긴 하지만 뭐 내가 받은 700만 달러 고스란히 내 계좌에 있으니 그거 사용하면 되잖아. 내가 뭐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며칠 전 워크샵에서 들은 다른 팀 참가자의 자동동체 이야기가 잊히질 않네. 그래 그만큼 나의 이데아가 소중하니 내 돈은 나의 이데아에 써야지!

2052년 6월 4일

정말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다. 너무 바쁘지도 너무 심심하지도 아쉬울 것도 없지만 완벽하진 않은 그런 날이었다.
뭔가를 덧붙여야 한다면.. 책을 좀 읽었다. 밑줄을 짹쫙 긋고 메모도 열심히 해 가면서 말이다.

2052년 6월 4일

오랫동안 조깅을 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지끈거렸다. 발목의 근육에 피가 올라 단단해지면서, 얇아진 발목뼈를 압박하는 것이 느껴졌다. 한참을 달리다가 인적이 없는 산책로에 다다랐다. 그 곳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었고, 바다로 이어지는 강의 하류가 한눈에 내다보였다. 나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워 숨이 고르게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가만히 누워있었다. 아.. 나의 생의 에너지. 나의 코나투스. 나의 세포들. 나의 세포들이 운반하는 나의 혈액. 나의 전류. 나의 시냅스. 나의 패턴.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려고 애써봤다.

2052년 6월 4일

오빠와 오랜만에 만나서 부모님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보니 조금 낯설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동질감이 느껴져 팬스레 웃음이 났다. 나름 사이가 좋은 남매였던 것 같다는 결론을 냈다.

2052년 6월 5일

내가 좋아하는 전시의 도록을 읽는 시간은 정말이지 환상적이다. 전시장에 있는 그 순간을 멈춰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으니 내가 원할 때 그 전시를 나만의 장소에 데려온다는 게 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마음에 드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도록을 읽고 틈새로 나의 성공적인 아주 를 바라는 분들께 남길 편지도 작성했다.

2052년 6월 5일

...

.....

2052년 6월 5일

도서관에 기증한 책들을 정리하다가 책갈피 용으로 말려놓은 낙엽을 발견했다. 이런 감성들은, 또 여기에 담긴 추억들은 기억하고 싶은데 말이지.

2052년 6월 6일

오늘 이주자들과 또 한 번 만났다. 7월 1일, 이주 날짜가 변경되었다. 휴. 일주일 가량의 자비가 내려졌다.

오늘은 이상한 긴 의자에 눈을 감고 누워 김무호씨가 읽어주는 이주 협약서를 들었다. 이주협약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이뤄졌는데 그 배 경에 맞춘 음악이 들렸고 바람을 묘사할 때면 바람이 살랑 불어 느낌이 좋았다. 웬지 눈을 뜨기 싫어 질끈 눈을 감고 있었다. 내가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고운 모래사장에서 거니는 게 상상이 되었는데 어쩐지 발아래 모래까지 느껴지는 느낌이었다. 다 들은 후 소감을 묻는다. 흄 뭐랄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쓴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눈 감고 이주협약서 내용을 듣는 것도 살펴보았는데 다들 눈이 파르르 떨렸고 가슴이 격하게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그다지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나도 저런 모습이었겠지? 다른 사람들이 깨어있은 상태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게 새삼 이상하게 다가왔다. 묘한 경험이었다.

2052년 6월 6일

처음으로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다. 뭔가 굉장한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차피 이주하게 되면 이 죄책감과 미안함도 사라지리라. 이제 곧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존재인데 계속 ‘메타아’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했다. 아마도 나는 세상에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나 보다.

2052년 6월 6일

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것을 토대로 협약서를 받았다.
큰 감흥은 없었다. 단지, 내가 겨울을 놓쳤구나 눈을 잊고 있었구나 했고,
아들에 대한 언급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 건장한 청년으로 꼭 설정해달라
고
말미에 몇 번 언급했다.

그러고 돌아와서 아들과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엔 아무도 없었다.

2052년 6월 7일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다가 오전 중에 그쳤다.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6월 치고는 날씨가 아주 쌀쌀해서 옷장 안의 긴팔 옷을 다시 꺼내어 입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카락을 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시 같으면 실행

하기 어려웠을 일인데, 아주 때문인지, 별다른 미련도 없이 숙숙 집에서 밀어 버렸다.

여러 종류의 가발을 써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머리를 밀어 버리면 오히려 더 쉬울 일이다. 머리를 밀지 않았으면 또 평생 해온 이 머리 스타일대로 유일하게 남은 며칠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결정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

밀고 나서 거울을 보니 약간 감자 같은 무언가가 눈을 검빡검빡 거리고 있었다. 거울 속의 그와 한참 동안 눈을 맞추고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뒤편의 벽에 걸린 액자, 액자 안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감각은 믿을 만한 것인가?"

2052년 6월 8일

짐들을 야금야금 정리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주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주를 결정하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안내책자 (530페이지짜리)와 자잘 자잘한 서류들이 자주 도착한다. 내용은 거의 전문적인 것들이라 내가 봐도 특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읽어보면 웬지 신뢰가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에 한 두 번씩 소파에 앉아 그것들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느라 시간을 많이 보낸다.

2052년 6월 9일

내가 이주를 결정한 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있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고, 몸으로 나를 끌어 안고, 온갖 다양한 종류의 반응을 보이다가, 길어야 몇 시간쯤 지나면 그들 자신도 지쳐서 잠들었다. 끈질긴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을 몇 주 동안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아주 끈질긴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반응은 사실 예상한 것이었다. 이주를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의 이주 - 우리가 죽음이라고 일컬어온 - 는 어찌 되었건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결말이다. 나는 항상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 생각해 왔다. 내 생각은 내가 남들 보다는 약간 먼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것을 안락한 방식으로 돈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보장된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역시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는 일이다. 아, 물론 이것은 죽음과는 정말 다른 것이다.

2052년 6월 10일

이주를 결정하면서, 매 끼니 먹고 싶은 것을 폭식하기로 함께 결정했는데, 이 때문에 몸무게가 20kg이 늘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모습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후회가 몰려왔다.

2052년 6월 10일

한동안 일기를 쓰지 못했다.

곧 이주를 해야하는데, 마지막 파티 때 누군가를 초대할지 고민이 든다.
막상 이번 생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초대할 사람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의 비서이자 같은 미혼모센터 친구 명인이,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아들,
평생 그리워했던 첫사랑이자 딸에게 유전자를 준 그…

2052년 6월 11일

날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더워졌다. 며칠 만에. 폭염주의보가 여러 지역에 내려졌다. 길을 걷는데 너무 덥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냥 웃통을 벗어버렸다. 알게 뭔가.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이곳에서의 삶. 나는 바지도 벗어버렸다. 대신에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어 썼다.

2052년 6월 12일

이것은 죽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죽음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간 수백 번 정도는 해 온 것 같다.
이것은 안락한 마무리, 그리고 보장된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다.

2052년 6월 13일

신앙심이 투철한 친구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이 존재하는 까닭에 관하여. 친구는 내가 반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 나의 신체는 냉동되고, 나의 삶은 코드로 치환되는 순간에, 내가 마주하게 될 장면이 뉴-아데아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잘못했다고 짹싹 빌어야지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그 말을 또 금방 철회했다.

사후에 벌어질 일에 관한 경우의 수는 결국 세 가지가 있다. 죽고 나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사라짐이 일어나는 것. 죽고 나보니 정말로 신이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긴 것이다. 죽고 나보니 내가 만든 세계에 다시 살게 되는 것.

친구는 나보고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네가, 어떻게 그들의 말은 이렇게 잘 믿는지 불가사의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친구는 요즘 밤 새 이런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수척해진 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 말이 또 완전히 거짓은 아닌 것 같아서. 한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052년 6월 13일

눈코 뜰 새 없는 일주일을 보냈다. 일어나는 책상에 앉고 노트북을 두드리고 자고 카페인을 섭취해서 새벽까지 잠을 참았다가 일어나는 삶. 이러한 삶들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갈까?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이 이주에 대한 것을 알아내고 싶다. 나는 왜 수많은 사람 중 선택되었고 또 새로운 세상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주하고 나면 이 세상은 또 이주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2052년 6월 14일

삶에는 정말로 변수가 무한대로 많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정말로 극소수의 몇몇 설정들뿐이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뉴-이데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나비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중첩 되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 다.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졌다.

2052년 6월 15일

오늘은 혼자라는 걸 빼저리게 느낀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깨달아버렸다. 이런 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2052년 6월 16일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in the early afternoon, I'd just got back from a walk up the converted landfill hill and wasn't expecting it. When I opened it no one was there, just another data chip hanging off the door handle. This one said "contains patch3.5b - please disregard previous chip".

I realised I'd totally forgotten the chip, why hadn't I thought to plug it in to my console... too much going on I guess.

Opening it on the desktop produced a folder full of sub folders with names that were composed of strings of emoticons, very difficult to make sense of. I clicked on a random folder titled '', it was full, I mean 2 petabytes full, with files of just about every format I knew as well as many I had no idea of. What's a .hudz file? The names were also just emojis. Same thing in a few other random folders I checked.

identical

I booted up the second chip, it was seemingly to the first, I couldn't spot any differences at first but running a quick index comparison it showed one change. A file called '.rit' had become '.rit'.

What do I make of this!? I guess I'm supposed to take it with me to the immigration. But what is it?

2052년 6월 16일

술을 진탕 마셨다. 위가 술로만 가득 차도록 포도주를 들이부어서 그런지 새벽에 깨고 말았다. 이주하면 내 육체는 어떻게 되려나.. 이젠 뭐 될 대로 돼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이내 다시 생각해본다. 그래도..

2052년 6월 17일

고등어를 구워서 메밀국수랑 먹었다. 맛있다.
요즘은 잔잔한 스트레스와 평온한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초조함
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상태가 나쁘다곤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심되기도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2052년 6월 18일

메타아에서 준 돈의 3분의 1을 소비했다. 이제 다음 주면 쓸모없는 돈이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 막상 돈을 받아도 다 쓰지 못해버렸다. 이게 평생을 살면서 쌓아 온 습관인 걸까? 다음주 파티를 위해 회사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데아에서는 많이 만났는데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다.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길은 재미있고 신나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한다. 메타아에서 마지막 드레스 코드를 말해줬다. 내가 이주한 날의 첫날.. 이 날을 위해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입고 꾸며보려고 한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드레스 코드를 전달했

다. 나를 위해 그렇게 입고 와준다고 한다. 감동이다. 파티 이틀 후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을 테지만 이들의 마지막 배웅의 순간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2052년 6월 19일

I've been analysing the chips thoroughly for the past 2 days, my pattern analysis software from work seems to have some kind of rudimentary effect, although these chips are clearly designed to be run in a totally different sort of software or hardware. The only things I managed to actually open were .pngs and .gliffs, they seemed to be fragments of larger things, square grids of colour gradients and strange angles and faces. I have no idea of the scale or how to arrange them. The files seem to follow a sort of lattice structure, with links across folders and files. I have no way to follow them using my console, it's all too massive and entangled.

It's all too massive and entangled.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쩌면 저주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 봤지만
난 그저 열일곱을 살던 중이었어요
귀가 찢어질 듯 매미가 울던 1999년의 여름밤
혹독하고 푸르던 계절이 깊게 깊고 간 자리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난 당장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아마 같은 실수들을 또다시 반복하겠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부 다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원했던 거라구요

검정치마의 노래 〈Flying Bobs (2022)〉의 도입부 가사
Lyrics from 'Black Skirt's song 〈Flying Bobs (2022)〉

4. 협약서들

다음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⁷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프로젝트에 자원하여 선정된 구성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작성된 그들의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삶에 관한 협약서이며,

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어 읽고, 또 듣기 위해 적혀진 글입니다.

⁷ '협약서'의 내용은 '래빗홀 프로젝트' (2022년, 2052년의 이주사건을 배경으로 진행된 집단심리극, 22페이지의 6번 주석 참고 *) 의 실제 참여자들과 35일간 심리극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와 참여자가 함께 구성한 계약서입니다.

〈 이주 대상자 이소의 협약서 〉

나 이소는,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이번에도 역시 '이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 한나 리, 혹은 이 한나 소입니다. 당신은 김포공항의 벤치에서 깜빡졸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김포공항의 벤치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 냄새 따위가 납니다. 당신은 진한 푸른색의 흄부르크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 한쪽에는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1968년 6월 7일이고, 당신은 1944년생입니다.

당신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대학교 철학부 대학원생이며, 당신의 지도교수는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네 학기째 수업을 듣고 석사논문을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당신이 귀국하게 된 까닭은 중앙정보부의 귀국요청 통보를 받고 조사에 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967년 있었던 동백림사건 이후, 독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친이 주한서독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인 까닭에 당신은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은 프란츠 폐링, 어머니 이름은 이청자입니다. 어머니는 당시에는 보기 드문 신여성 예술가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의 국적으로 1939년 미국의 블랙마운틴 칼리지에 입학한 어머니는,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지만, 반 나치 활동을 하던 독일인 유학생 아버지를 만나 전쟁 중에 결혼하였고 당신을 낳았습니다. 당신이 집 앞 마당에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던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라디오를 통해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선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어머니 이청자는 해방 후 당신이 네 살 되던 해에, 당신을 데리고 귀국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외가는 서울이 경성이었던 시절부터 종합병원을 운영해온 병원장 집안입니다. 당신의 외조부도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하여 존스 흉킨스 대학교에서 외과의 수련을 한 당시로써는 보기 드문 인텔리입니다. 그 덕에 당신의 어머니가 자유로운 학풍 아래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품성은 당신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년시절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고, 1955년 김나지움에 입학하면서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갔습니다. 예술가로서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와, 당신을 독일에서 교육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갈등 끝에 이혼하셨고,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독일로 떠났습니다. 다만 어머니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편지로 자주 소통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필기체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독일어를 제2의 언어로, 그리고 한국어를 제3의 언어로 사용하지만, 셋 모두 유창하게 합니다.

다만 영어와 독일어 한국어가 뒤섞인 악센트가 두드러집니다. 당신은 미국에 있는 어머니, 독일에 있는 아버지를 둔, 영어를 모국어로, 독일어를 제2언어로 쓰는 한국 국적의 20세기 여성입니다. 독일에는 같은 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남자친구, 당신보다 다섯 살이 많으며, 근사한 턱수염이 난 '주드 로'를닮은 독일인 요셉 호펜하이머가 있습니다.

당신은 김나지움에 있을 때부터 발터 벤야민을 동경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나지움 2학년 시절 문학 교과서에 실린, 그가 번역한 보들레르의 <악의 꽃> 번역과 비평을 읽고 나서부터입니다. 발터 벤야민을 동경한 것이 동기가 되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것이 위르겐 하버마스의 학생으로 자원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요시찰 대상이 되어 일 년에 한 번씩 입국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연 2회 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국내로 보내야 합니다. 이제 조사는 끝났고 당신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당신을 요주의 인물로 여기는 까닭은 발터 벤야민이 소련에 살았던 적이 있고, 마르크스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어머니에게 부치는 당신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발터를 사랑하는 까닭은 기억에 대한 그의 끝없이 깊숙한 사유 때문입니다. 설명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하고도 다단한 나의 경로는 조각난 나의 기억들로 의해 소환되어 지금 여기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이는 장면들이랍니다.’” 1944년생 당신의 삶은 1968년에 시작되어, 당신이 예순다섯이 되는 2009

년에 종료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삶이 언제 다시 종료될지 모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1968년으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45년 뒤 다시, 45년 뒤 다시, 계속 돌아옵니다.

'이소'라는 인물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들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_____

〈 아주 대상자 이혜승의 협약서 〉

나 이혜승은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정혜승'입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들리는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 것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새롭게 존재하는 시작하는 시점은 1984년 6월 30일 오전 6시 17분입니다. 당신의 출생연도는 1960년 1월 23일입니다.

당신은 홍콩의 리펄스 베이, 비치로드 3번가에 위치한 플러스드림 밸리 2201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다만 24살, 건강한 여성의 신체나이 평균값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딥워터베이, 딥워터베이로드의 고급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정도마, 어머니 이수전이며, 당신은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스탠다드차티드뱅크의 홍콩지점 지점장이시며, 매우 부유한 분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부모님 속에서 매우 부유한 성장환경을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버스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졸업 후 1년간 흄스쿨링을 거쳐 홍콩대학교 경영학과에 조기 입학하여 19살에 졸업하였습니다. 당신은 1980년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MBA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부모님의 창

업지원 하에 고급음식점 <홍콩반점>을 창업하여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발전시켰고, 1983년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액을 챙겼습니다. 이후 곧바로 비즈니스 컨설팅 스타트업 <대단히 유쾌한>을 창업하여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당신의 곁에는 어젯밤에 읽다 잠든 <열혈남아>의 대본이 놓여 있고, 무선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영화업계에서 일하는 감독 지망생 왕가위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성 관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으며, 그 사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왕가위는 당신에게 약간의 호감을 보이며, 그가 쓰는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당신에게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가 세 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으로는 일등화가 있습니다. 일등화는 수영선수이며, 홍콩대표로 1984년 LA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팀 선발전에 참여하였지만, 세라 하드캐슬에 밀려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일등화는 그러나 홍콩에서는 적수가 없는 수영 실력자입니다.

당신은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기지개를 켠 후, 창 밖을 10초간 살핀 후, 침대 곁에 놓인 체중계 위에 올라 몸무게를 재고, 접시에 놓인 초콜릿을 한번에 절반 정도 크게 깨물어 먹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라이크라 소재의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리펄스베이 해변을 35분 정도 조깅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조깅할때 항상 소니 워크맨을 챙깁니다. 당신은 광동어 노래보다는, 미국의 팝 음악이나 일본의 씨티팝을 즐겨듣는 편입니다. 1984년 6월 30일 오전 6시 17분 당신의 워크맨에는 마리아 타케우치의 카세트테이프 A면 '플라스틱 라브(Plastic Love)'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960년생인 당신의 삶은 1984년 6월 30일 시작하여 2040년 종료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종료를 맞게 됨을 선택하셨습니다. 2040년 종료된 당신의 삶은 다시, 1984년으로, 다시 1984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정혜승' 이란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_____

〈 아주 대상자 임효진의 협약서 〉

나, 임효진은,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아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요요진입니다.

당신은 1984년에 태어납니다. 당신은 1992년 12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임산부인과 1층에 만들어진 크리스마스트리 옆에서 병원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고 내려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잠이 어렴풋하게 깨 무렵 장난치며 웃는 누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Nat King Cole이 부른 ‘The Christmas Song’의 멜로디가 귀에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당신은 이 하루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대단히 심오한 생각을 잠시 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기억해내려 하지만,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잠시 느낍니다.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몇 시간 후 받게 될 크리스마스 선물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에 온통 쏠려있습니다.

부모님의 친구들과 그 자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병원의 응접실에 모여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대형이 아저씨가 당신에게 초콜릿을 건네줍니다. 당신은 고맙다는 말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아저씨를 잠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입에 넣고 우물거립니다.

갑자기 누나가 카세트테이프를 다시 꺼내어 뒤집어 넣고 재생버튼을 누릅니다. '난 알아요'의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훈이 형이 왜 노래를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편장을 주지만, 노래는 계속 나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감각이 미숙한탓에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 리듬과 비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어렴풋이 들썩이고 몸속에서 무언가가 꿀렁꿀렁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창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 곳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임산부인과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의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이외에도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당신보다 네 살 위의 누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받는 일도 좋아합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 이민준과 함께 병원 바깥으로 나가 눈 구경을 합니다.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눈사람을 얼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조바심을냅니다.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속에 있는 폴리우레탄 공룡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공기 중에 입을 호하고 불어봅니다. 김이 나는것이 마치 불을 뿐는 공룡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당신의 기분이 으쓱해집니다.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셔서 추운데 바깥에 있으면 감기 걸리니 어서 들어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케익먹자고하십니다. 당신은 작은 발자국 몇 개를 갓 내린 눈 위에 남기며 병원 안으로 다시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작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당신이 그것을 알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그림을 보게 될 것이고, 좋은 작가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키스 해링입니다. 당신에게는 이십 대 초반에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것이며, 이후 아프리카에서 일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많은 재미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재미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984년에 태어난 당신은, 1992년부터 시작되어 2052년까지 이어지다가 종료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인지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당신의 삶이 종료될 것을 예감하며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료된 당신의 삶은 다시 이 1992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0년 후 다시, 그리고 60년 후 다시, 끝없이 되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요진’ 이란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 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 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_____

〈 이주 대상자 메구미의 협약서 〉

나 메구미는,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비이 다나카’입니다.

당신은 봄날 맑은 바닷가의 해변에 누워 깔 것입니다. 당신은 가벼운 원피스 차림입니다. 고개를 돌리니 가족들이 캠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진 바닷물이 너무 맑아서 눈이 부십니다. 어느새 다가온 쌍둥이 오빠는 자다 깨 당신의 모습을 보고 약간 귀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 하고 물습니다.

당신이 새롭게 존재하는 시작하는 시점은 2008년 5월 27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당신의 출생연도는 1997년 4월 22일입니다. 당신은 일본의 고토구시의 에도 가와 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는 아오이 유우, 고마츠나나와 같은 검은 자연 머리에 속 쌍꺼풀이 있는 사랑스러운 앳된 모습입니다. 11살이며 1985년생~1996년생 일본 여배우 3,300명의 외모 평균값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일본 고토구시의 아라카와 강 옆 도쿄린카이 병원 맞은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시이 다나카 , 어머니 디이 사토이며, 당신은 쌍둥이 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쌍둥이 오빠의 이름은 에이 다나카입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도쿄대학교의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창립멤버로서 유수의상을 수상한 “모든 주제의 토론에 대응이 가능한 연구자”로 인정받은 미학 교수이시며, 어머님은 도쿄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당신은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복을 가진 부모님 속하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에도가와 구립 제7가사이 초등학교를 쌍둥이 오빠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수공예를 배우길 좋아하고 만화를 보거나 그리기 좋아하여 향후 호리코시 예술 고등학교에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손꼽히며 많은 친구의 사랑을 독차지하곤 합니다.

집에서 막 깨어났을 때, 당신의 곁에는 첫째 고양이 릴리가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 뒤 야옹 거리는 둘째 고양이 포포가 있습니다. 손에는 모래알이 묻어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핑크색 플라스틱 선글라스가 놓여있습니다. 또, 메이지 이치 고오레 딸기 우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쌍둥이 오빠와 사이가 좋습니다. 오빠는 공상에 빠지길 좋아하고 무언가를 개발하며 창의적인 일을 하기 좋아합니다. 올여름엔 오빠와 메이, 스즈코가 함께 카사이린카이 수족원에 놀러 가 돌고래를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친구인 메이는 배려심이 강해서 절대로 싸울 일 없는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스즈코는 당신의 고민을 가장 현명하게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당신은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마시고 잠옷 원피스를 예쁘게 개어 이불과 함께 털어낸 뒤 접어둡니다. 그리고 작은 손수첩과 연필을 들고 책가방을 싸고 엄마 아빠 방에 갑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속 들어가 잠깐 안겨 있다가 씻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어젯밤에 개켜둔 연분홍 원피스를 꺼내입고 학교를 갑니다. 당신은 학교에 갈 때 오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학교 가는 길 앞에는 신사콘가와 신스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오리들을 보면서 잠깐 앉아 쉬는 걸 좋아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오후 3시 33분 당신의 선글라스에는 주홍빛 하늘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새우가 구워지는 냄새가 나고 엄마와 아빠는 웃으며 어서 와 간식을 먹으라고 손짓합니다.

당신은 25세부터 오빠와 함께 유명한 현대 미술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97년에 태어난 당신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당신이 육십 세가 되는 2057년까지 이어지다가 종료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하지만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 2057년까지 이어지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8년으로, 그리고 다시 2008년으로, 이 특별한 시점으로 끊임 없이 다시 돌아오며 반복될 것입니다.

‘비’란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 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 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_____

〈 이주대상자 나가사와 미도리의 협약서 〉

나, 나가사와 미도리는,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나한나'입니다.

지금 당신은 혼들의자에 앉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살짝 열린 큰 창 사이로 기분 좋은 바닷바람은 솔솔 들어오고 봄볕은 주변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혼들의자 옆에 있는 작은 턴테이블에서 토니 베넷이 부르는 'Body and Soul'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베란다에 찾아온 작은 새가 콕콕 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살포시 잠에서 깨니다. 무릎에는 읽다 만 '그 후의 삶'이라는 책 한 권, 테이블에는 차 한 잔이 놓여있습니다. 손을 뻗어 찻잔을 들어 차 한 모금을 머금습니다. 향긋한 흥차가 기분 좋게 입안에 퍼집니다.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은 2022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35분입니다. 당신의 출생 연도는 1941년 7월 5일이며, 올해로 만 80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제주 앞바다의 맨션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골동품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습니다. 집은 밝은

우드톤으로 구성되어 부모님께서 수집한 골동품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인테리어 잡지에 제주의 아름다운 집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는 나아가 들어 주름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손질이 되어 있어 고상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특별하게 주문 제작한 굵은 녹색 테의 동그란 안경을 쓰고 다녀 예술가 특유의 분위기를 오묘한 풍기기도 하네요.

당신의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나병은, 어머니 이숙이며, 당신의 부모님은 모두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개장을 만드는 장인으로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도 인정받아 일본에 있는 세계 최대의 칠예 미술관인 '이와야마 칠예미술관'의 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아버지와 미술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미술관의 운영을 도우며 작품을 수집하고 유명한 전시인 《심하게 아름다운 한국의 자개》를 큐레이팅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한 살 터울의 오빠 나영석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동으로 불린 당신의 오빠를 따라 어렸을 적 가족들과 함께 월드투어 피아노 리사이클에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피아니스트에서 은퇴한 뒤에도 예술의 전당 지휘자로 근무하다 정년 퇴임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 집안에서 자라며 홈스쿨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조기 예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살 터울의 오빠와 함께 교육받으며 오빠는 음악에,

당신은 문학에 소질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전 세계를 유랑하며 자라며 다양한 언어의 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집을 출판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흔들의자에서 일어나 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바깥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논밭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여름에 우박 비가 내리던 당신의 11살 생일에, 논밭을 걸으며 오빠와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나눠쓰고 그 안에서 재잘재잘 순진한 웃음을 터트렸던 날이 떠오릅니다. 결국 몸의 반이 젖은 채 집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포근한 수건을 건네받아 몸을 닦고 따뜻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가족들과 모여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노곤한 몸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닥타닥 빗소리와 따뜻한 집 안의 온도,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흔들의자에서 나른하게 앉아 있던 그날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당신은 오랜만에 찾아올 아들을 맞이하려 음식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향합니다. 아들은 편드매니저로 건장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졌으며 오늘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어젯밤 본 영화 ‘줄리 앤 줄리아’에서 나온 비프부르기뇽을 준비합니다. 부지런히 만들기 시작해야 아들이 올 시간에 맞춰 음식이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올 때마다 당신이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후식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941년에 태어난 당신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7년까지 이어지다가 종료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삶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잠에 드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한나’라는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들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_____

〈 이주 대상자 김민정의 이주 협약서 〉

나, 김민정은,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김엄지, 하지만 ‘엠제이 킴(Emjay Kim)’으로 불립니다. 당신은 깨끗한 킹 사이즈 침대 위에서 사랑하는 그녀 ‘제이(Jay)’와 함께 깨어납니다.

당신이 새롭게 존재하는 시작하는 시점은 2052년 8월 12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 당신의 출생연도는 2020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52년 6월 29일입니다.

당신은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2길에 있는, 2층짜리 개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일어서면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앓아있는 침실에서 보이는 강 건너편 강남구의 아파트 에테르노 청담 1601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김일론, 어머니 이나희이며, 2살 터울의 오빠 김서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글로벌 유통기업 파인델리의 창업자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부모님 슬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성장환경을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서울 용산 국제학교를 마치고 미국 코네티컷주의 월링퍼드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초트 로즈메리 훌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대학교육을 거부하고 얼굴 없는 시각 예술가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당신의 곁에는 드로잉 북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 그리다 잠든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1살이 된 달마시안 강아지가 곁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Jay가 파란색 가운을 입고 자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로 활동 중인 제이의 숨겨진 약혼자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제이가 동거를 한 지는 이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는 제이의 매니저 민이가 있습니다. 마흔네 살의 민이는 제이의 예능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제이의 사적인 일에도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귀한 친구입니다. 또한 민이는 글로벌 격투기 단체 원-챔피언십에서 괴짜 챔피언으로 불리며 젊은 시절을 멋지게 활약한 격투기 선수로서 현재는 딸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민이는 제이와 당신에게 든든한 남자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의 거울 앞에 섭니다. 당신의 외모는 서른두 살의 김민정, 현재의 외모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성됩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잠시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늘 불현듯 열두 살 때 짹사랑했던 한 소년이 떠오릅니다. 소년에 관한 장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동시에 다른 시공간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 엠비언스를 되도록 스물네 시간 집안에 틀어놓고 일합니다. 당신은 사회에 사랑의 다양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후 제이의 이번 작품활동을 끝으로 둘은 아기를 입양하거나 임신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2월 1일 태어난 당신의 삶은 2052년 6월 29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2120년 6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은 101살의 나이에, 당신이 곧 사망하게 될 것을 직감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다시 205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1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8년 후 다시, 68년 후 다시, 영원히 돌아옵니다.

‘엠제이’ 이란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 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 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_____

〈 이주 대상자 박주은의 이주 협약서 〉

나 박주은(는),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박주은'입니다.

당신은 침실의 통창에서 들어오는 환한 빛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창밖으로는 조경이 아름다운 인공 정원이 보이고, 침대 맞은편 벽에는 박영근 작가의 〈A horse〉가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본래 갤러리였던 이곳에서 소장하던 작품으로, 당신이 건물을 살 때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존재하게 되는 시기는 2052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4시 30분입니다.(128시간에서 64시간이 오전이므로 오전 14시 30분은 막 해가 떴을 시간입니다.) 출생 연도는 2022년 1월 11일이며, 올해로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54-14에 있는 본인 소유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갤러리 비선재였던 낡고 오래된 건물을 주택구조로 리모델링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집안 곳곳에는 예전 건물의 흔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외모는 지금의 당신과 유사하나, 하루가 128시간으로 흘러가는 이데아 설정 값에 따라 해당 세계 평균

30세의 신체, 즉 중년인 한국 여성의 몸을 갖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동자는 여전히 생기 있고 몸은 또래보다 건강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판교에 있는 쾌적한 지하형 타운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박현정', 어머니 '이청희'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국방송의 보도본부장으로 몇 년 안에 사장까지 바라보고 있으며, 어머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지상파의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서울 연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삼중학교, 청담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언론홍보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졸업하였습니다. 졸업한 나이는 20세로 해당 이데아에서는 박사과정을 마치는 평균적인 나이입니다.

당신은 대학원 시절부터 친구들과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고 이때 함께 했던 몇몇 친구들은 유명한 배우나 MC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신은 현재 프로덕션의 대표이자 MC, 언론인이자 2급 상담심리사입니다.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은 방송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프로그램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그런 명성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매일 남들보다 길게 깨어 있으며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취재하러 다닙니다. 주말이 되면 당신은 주변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신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던 시절, 해당 대학의 저널리즘 대학원에 다니던 대학원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난생 처음 크림 브륄레를 먹어보았고, 당신은 그 사람 삶에 있어 처음으로 홈런볼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 뒤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크렘 브륄레,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홈런볼이 되었습니다. 지난밤, 당신은 당신의 이전 연인이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구 대부분이 죽음에 이른 미국 서부의 적나라한 현실을 담은 기사로 풀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아이디로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건 당신이 그 사람과 헤어진 뒤 처음 보낸 문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당신은 몇 달 전부터 오늘 하루를 쉬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았으며, 결국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이불을 몸에 휘감으며 천천히 다시 잠에 빠집니다. 그때 당신의 체내 아이디로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당신 문자를 받고 나도 모르게 한국에 와버렸어.” 어제 당신이 보낸 메시지의 답장이었습니다.

2022년생인 당신의 삶은 2052년에 시작되어, 당신이 팔순이 되는 2112년에 종료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삶이 언제 다시 종료될지 모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2052년으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50년 뒤 다시, 50년 뒤 다시, 계속 돌아옵니다.

‘박주은’이라는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들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 _____

〈 이주 대상자 류홍은의 이주 협약서 〉

나, 류홍은은, 6월 30일 역사적인 첫 이주의 베타 테스터로서 아래에 협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한 절차가 수행됨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은'입니다.

당신은 감은 눈에 와 닿는 밝은 빛에 잠을 깁니다. 눈을 뜨자 복층형 거실의 높은 천장과 통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밖으로는 멀리 한강이 보입니다. 거실 창은 반쯤 열려 있는데 그 사이로 작은 새의 지저귐과 어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 창문으로 향하고 숨을 들이쉬자 빌라 주변에 무성하게 심어진 조경수들의 향긋한 피톤치드가 온몸으로 퍼져 나갑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존재하게 되는 시기는 2027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7시 25분입니다. 출생 연도는 2003년 3월 21일이며, 올해로 만 24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하이페리온 1601호로 이사왔는데, 이 집은 당신의 오빠 소유입니다. 당신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뉴욕주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당신의 현재 외모는 젊은 시절의 당신과 유사하나, 평균적인 27세의 한국 여성보다 건강하고 힘이 넘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고급 주택에서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이지섭', 어머니 '이은하'이며, 당신의 아버지는 작년까지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총영사직을 지냈고, 올해 4월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남동에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빠 '이호'가 있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리스트로 각국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의 막내딸로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무한한 사랑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자랐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살았고, 그 안에서 당신은 각국의 문화를 즐기며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당신은 영국 런던의 명문 사립 초등학교인 노팅힐 앤 얼링 주니어 스쿨을 졸업한 후, 잠시 한국의 영훈국제중학교에 다녔으나 아버지의 잣은 해외발령으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이후 뉴욕대 티시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졸업한 뒤 뉴욕에서 한동안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아버지가 뉴욕에서 총영사로 있던 작년까지, 당신은 매주 수요일 점심을 아버지와 함께했고 그건 두 사람에게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영사에서 은퇴한 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당신에게 한국으로 돌아올 것

을 제안했고 당신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즉흥적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침대 옆에 놓았던 휴대폰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입니다. 전화벨 소리는 재지팩트의 스모킹드림입니다. 당신은 그 오래된 음악을 흥얼거리며 전화를 받았고, 어제 오빠가 사온 청사과맛 사탕을 깨먹습니다. 이삿날이었던 어제, 당신의 오빠는 당신이 좋아하는 붕어싸만코와 썬키스트 사탕, 포카칩을 잔뜩 사왔고 일 때문에 오지 못한 아버지는 이번 시즌 프로야구 시즌 권과 애정이 담긴 편지를 퀵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모두 기다리는 본가에 방문하기로 했고, 어머니는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 태어난 당신의 삶은,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은 칠순이 되는 2073년에 종료됩니다. 그때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유행하던 전염병에 걸려 같은 2인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 일주일 째 되는 날, 두 사람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6년 전, 2027년으로부터 시작하여 2073년까지, 그리고 다시 46년 전으로 돌아가 2073년까지, 2003년생인 당신의 삶은 2027년부터 시작하여 2073년까지 반복됩니다.

‘은’이라는 캐릭터의 다른 세부설정, 이를테면 성격과 같은 부분 중 특별히 따로 기술해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나푸름 박사님과의 심리상담내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주신 내용과 이질감이 없도록 특별하고 세심하게 이퀄라이즈 되며, 세부적인 데이터셋은 메타아-이데아의 미러드 월드 크롤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이름 _____

자필 서명_____

5. 발견된 메모 A – 작자미상

첫 번째 이주가 이루어진지도 8년이 지났다. 아침 일찍 메모리
얼 파크로 향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한 메타아&이데
아 사의 그런 메모리얼 파크에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52년
6월 29일,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행사 <뉴-데이스 이브
(New Day's Eve) : 생물학적 존재로서 맞는 마지막 밤> 때 공개
된,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다. 등대의 모양을 한 그
조형물은 녹색 빛을 항상 내뿜으며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처럼 천
천히, 그리고 무한하게, 시계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 메타
아&이데아사의 설명으로는, 일분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움직임은
뉴-이 데아 (그들이 각자 이주한 새로운 영역을 사람들은 기존 메
타버스 플랫폼 이데아와 구분하기 위해 뉴-이데아라고 불렀다.)
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삶이 '종료'(하지만, 그것은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된 이후에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형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철제구조물의 가장 아랫단에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하고도 넓적한 모양의 낮은 원기둥, 혹은 두툼한 원판모양의 지지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림잡아 보아도 지름이 약 15 미터 정도는 족히 되어 보인다. 높이는 약 50cm 정도로 낮다.) 그것의 바깥 면에는 첫 번째 개척자들의 이름이 빙 둘러 새겨져 있다. 이름 옆에는 각자의 출생연도가 적혀져 있었는데 사망년도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조형물의 제작자들은 그들이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물의 가장 안쪽으로 접근하면, 크롬 도금된 검은색 거울 표면으로 위장된 생체 인식 스크린을 보게 된다. 그것은 사전에 등록된 관계자, 혹은 유가족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조형물의 내부 지하로 연결된 스크린 도어인데, 그곳의 지하에는 첫 이주자들의 신체가 냉동 보관된 공간이 있으며, 그들의 뉴-이데아 코드가 원격으로 관리되는 중앙 통제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주라는 사건은, 남겨진 자들의 남겨진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의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사건의 전말을 증언하였다. '종료'는 어느덧, 권장되는 방식의 결말이 되어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그것은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메타아&이데아 사는 첫 번째 이주사건이 마무리되자 이듬해 2차 이주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했다.

성공적인 이주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은 자신의 세계를 빈틈없이 서술하기 위한 시나리오 창작 능력이었다. 오 그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 시나리오 작성을 도와주는 일종의 '작가'라는 직업은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메타아&이데아 사에 자신의 종료를 의뢰하기 이전에, 수차례 상담을 받고, 시나리오를 검토받는 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 첫 번째 이주자들의 시나리오 (당시에는 그것을 '협약서'라고 불렀다.)를 작성하는 데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두 번째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5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다섯 번 도는 만큼의 이 기간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진행하면서 5년 동안 별다른 재발소견이 없으면 보

통 완치판정을 받는다. 요즘에는 암 선고⁸를 받으면, 대부분 아주 시나리오 서비스를 상담받는다.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은 거의 예외없이, 불현듯 나타나기 마련이다. 암도 마찬가지이다. '암'이란 단어의 한자 어원은 바위같이 단단한 뎅어리의 병이라는 뜻이다. (나는 그것을 내가 찾아보기 이전에는 '어둡다'라는 뜻의 '암' 인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것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다.) 의학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시게 발전하여, 인류는 병 대부분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그 단어의 정의인 것처럼) 암은 여전히 논리의 바깥에 머문다. 추측은 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돌연변이'가 그렇듯, 글자 그대로, 돌연히, 불가해한 순간에 불쑥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삼사십년 전만 해도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세대 안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명확한 과학적 이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이해하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마치 절대로 밝혀져서는 안되는 신의 비밀처럼.

⁸ 2050년 통계를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의사는 내게 항암치료에 관하여 안내했다. 6개월간의 어려움을 견디면, 나는 시간을 벌면서, 얼마간의 확률로 삶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죽음이 나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원래부터 자명했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안내받았다.



〈머스크 멜론〉,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추출된 가공사진, 13x18cm, 2023
〈Musk Melon〉, Fake portrait produced using Midjourney, 13 x 18cm, 2023

6. 발견된 메모 B – 기자수첩

메모 – 가네모토 하미 인터뷰를 위한 메모 * (설외 확정)

- 가네모토 하미(2013년생, 47세). 주로 〈이데아〉 내부에서 큰 매출을 올리는 명품 향수업체 〈메타홀릭〉의 이사회 부의장.
- 1차 이주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자 의아했던, 메타홀릭 창업주 나가사와 미도리의 이주에 관한 뭔가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 의장 나가사와 미도리 (본명 가네모토 히토미) 의 친동 생. 도쿄대학 공과대학 출신으로, 차갑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여러 스타트업을 이끌 어 왔으나, 언니 나가사와의 〈이주〉 조현병 발발 이후, 본인 또한 심한 우울증이 발 병하며, 다소 성격이 달라졌다는 평.
-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부모는 2세대 자이니치. 이후에 일본으로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케이스.
- 2030년 한국으로 건너온 둘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이루었으며 한국어에 도 능통한 편.

메모 – 김경식 인터뷰를 위한 메모 * (설외 확정)

- 김경식(99년생, 62세). 부동산 중개업자. KBS앵커 출신 방송인 허수진의 전남편.
- 허수진은 이혼 후 1년 뒤, 1차 이주자로 선정되어 뉴-이데아로 이주.
- 이후, '김상식'이란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 전 부인 허수진의 이주에 대한 충격으로 약간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임. 심층적인 인터뷰가 필요함.
- 김경식 본인도 2차 이주를 신청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메모 – 조요한 목사 인터뷰를 위한 메모 (설외 확정)

- 콩고에서 사역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85년생, 76세).
- 원래 공학도 출신 연구원으로 일하였으나(나가사와 미도리와 대학 동기), 2025년을 전후로 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하던 시기, 볼리비아, 과테말라, 수리남에서 10여년간 사역을 하게 됨.
- 2036년 콩고로 가서 정착. 개척교회를 일구었다. 현재에는 킨샤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꿈을 꾸는 교회' 담임목사로 맡고 있으며,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 52년 첫 이주사건 이후, 제 3세계에서의 이주 신청자가 특히 폭증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비판하는 칼럼을 열두 차례나 기고한 바 있음. (BBC 인터뷰 참고)
- 콩코의 아프리카 최대부호 크리스토 당고테가 조요한 목사가 사역하는 '꿈을 꾸는 교회' 의 대표적인 유명신자. 그러나 그가 52년 전격적으로 '이주'하고, 그의 재산 중 80%를 환원하는데 (이것은 해당 시기를 기준으로 450억달러), 이를 향후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음.
- 당고테는 냉동 처리되던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십자가를 놓지 않으며, 자신이 변치 않는 크리스천임을 드러냈는데, 이는 교계에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파악됨.

메모 – 이세림 인터뷰 위한 메모 (섭외 확정)

- 중견배우 이세림(94년생, 67세). 가네모토 하미와 나가사와 미도리의 공개적인 최측근.
- 메타홀릭의 대표모델. 배우로서 데뷔는 일찍 했으나 뒤늦게, 작품 <바닷가에서>로 에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스타덤에 오름.
- 가네모토 자매와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 아직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나가사와 미도리의 이주 사건, 특히 나가사와 미도리의 상속에 관한 원가 단서가 있을 듯.

메모 – 진명준 인터뷰를 위한 메모 (협상 중)

- 본명 이영준 (2019년생, 42세). 중국 OTT드라마의 숨은 제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카피 시나리오를 만들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짐.
- 이후 국외에서 수많은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고, 텐센트 그룹의 비리 게이트와 관련되어 쓰촨성 공안의 수사를 받게 되자, 46년 한국으로 도주. '진명준'이란 이름으로 <이데아>에서 활동하며 작가로 재기와 성공.
- 2052년 1차 이주 대상자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 공안의 국외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이 그 이유인 듯. 이후, 2차 이주 대상자에 지원하여 선정.
- 의문점은, 범죄와 연루된 대상자를 그토록 철저하게 스크리닝하는 메타아-이데아 가 어떤 이유로 진명준을 2차 이주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가 하는 것.
- 해당 인터뷰를 2차 이주 후 10년 뒤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현재 협상 중.

메모 – Ruhestone 인터뷰를 위한 메모 (섭외 확정)

- 본명 이방주 (1985년생, 76세). 예술가. 환경 운동가. 나가사와 미도리, 조요한 목사의 최측근. 이들과 대학 시절 같은 써클에서 활동한 기록.
- 나가사와 미도리의 초창기 인간관계에 관련한 많은 단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나가사와 미도리가 이주 후, 그 앞으로 그녀의 유산 중 600만 달러를 남겨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됨.
- 원래 독일에서 활동하다 1차 이주사건 이후 귀국. 이후, 특별한 공개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듯.

7. 코나투스, 이상한 꿈

사건이 언제, 그리고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자면 그것들은 거의 예외없이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많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그렇듯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발견이라기에는 좀 괴상한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것은 메타아-베이 에어리아 센터⁹의 노아 흥 박사가 어느날 아침에 자신에게 꿈쩍없이 훑어먹힌 일입니다.

⁹ Metah-Bay Area Center, 흔히 MBAC, 엠백 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아시다시피 이데아의 씬에는 '중첩접속¹⁰'이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중첩접속'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계정이 중첩 되어 접속되면, 계정 주인의 캐릭터가 이데아에 '겹쳐진 채로' 등장합니다. 홍 박사는 이데아 씬 속 그의 펜트 하우스 침실에서 자면서 씬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접속했을때 그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곤 했는데, 그는 처음에 자신의 얼굴 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엎드려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계정 접속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홍박사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첩접속'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마치 거울이 붙어다니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자신과 몸을 완전히 밀착하고 (자신의 얼굴이 또 다른 자신의 뒷통수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사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코드 오류입니다.¹¹ 보통 이 경우에는 사실은

¹⁰ Superimposed Access 라고 부릅니다.

¹¹ 이데아의 씬은, 캐릭터의 작동 코드가 초당 120프레임으로 특정한 좌표에 렌더링하여 제생합니다. 중첩접속은 이 과정에서, 좌표의 위치설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위치가 살짝 엇나갔을때, 알고리즘 내에서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두 개의 약간 다른 위치에 캐릭터의 코드를 렌더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것이 살짝 엇나가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도장을 다시 찍어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첩접속이 반복되면, 시스템 내의 '자가면역 프로토콜'이 작동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인, 두 사람이 서로 뒤엉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먹은 것을 행동에 옮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다른 누군가가 중첩접속된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오류가 수정되곤 했습니다. 2044년, 그러니까 벼전 30 이후부터가 되어서야 중첩 접속을 베이 센터에서 자동으로 감지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코드가 수정된 것이지요.

근데 홍 박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오류가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응해야 하는 그의 복제본이 마치 발작을 하듯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또 다른 복제본은 그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밀착하고, 부비대고, 핥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기절할듯 놀라서 침대 옆으로 넘어진 홍 박사는 센터의 개발자들만 알고 있는, 긴급구호 제스처를 취하면서¹² 가까스로 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데 단지 이상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기묘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홍 박사는 침대 맡에 한참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가 호감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

¹² 긴급구호 제스처 (emergency handshake)라고 부르는, 손가락을 세 개만 펴고, 손목을 털듯 위 아래로 흔드는 제스처를 취하면, 곧바로 이데아 보안팀에 해당상황이 전송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 보수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긴급 구호를 위해서 개발된 코드입니다.

고 있었던 동료 연구원 타냐에게 사실 아침에 이데아에서 자신에게 벌어졌던, 자신에게 훑아먹힌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냐는 곁으로는 진지하게 혹은 때때로 웃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또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베이 센터에서 몇 가지 시스템을 살펴보고 정비하는 일을 마친 홍 박사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다시 이데아에 접속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먹고 있던 밀크 쉐이크를 옷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아침에 중단되었던 장면이 끊겼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는 이데아 씬 내에서 뒤로 넘어진 채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긴급 구호 제스처를 취하지도 못한 채, 다른 동료가 그를 발견할때까지 자기 자신에 의해 꼼짝없이, 그리고 정신없이 훑어졌습니다.

8. 코나투스. 코나투스

엠백¹³의 개발 존 바로 옆에는 생물 연구 존이 있습니다. 엠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거의 대부분 기밀이기 때문에, 서로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말단 연구원 파르미니 일리어스는 주로 실험에 쓰이는 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면 빠르미니라고 불러야 하지만,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파르민 일리어스, 혹은 줄여서 '파미'라고 부른답니다.

¹³ Metah-Bay Area Center, 흔히 MBAC, 엠백 이라고 부릅니다.

파미는 <동면상태의 생물체에 대한 가상 신경전달물질 적용기 전 연구>라는 긴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의상 물어본 다음, 막상 그녀가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에는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이데아에서의 멀티플 오르가즘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그녀의 일을 설명한 다음부터는 그녀의 말에 약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실험에 쓰일 쥐를 샤워시키는 일입니다.

쥐들을 샤워시키는 까닭은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샤워를 마친 쥐는 마취주사를 맞은 다음, '이글루'라고 흔히 부르는 반구형 장치안에 눕혀집니다. 자기장이 흐르는 금속재질의 바닥면 위에, 그는 양팔은 벌려지고 발은 밑으로 가지런히 고정된 채, 앞니가 살짝 들어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숨을 내쉴때마다 그가 누워있는 바닥면에는, 마치 유리창에 서린 입김처럼, 고유한 무늬의 흐릿한 패턴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글루 장치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부의 온도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무선 충전기처럼 생긴 금속 재질의 바닥면은 그의 신체로부터 발생되는 고유한 패턴의 전자기 파동을 추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파미의 팀은 이제 벌써 딱 7년 전이 되는 그 해 여름에, 물론 그 때에는 파미가 입사하기 훨씬 전입니다만, 그 실시간 전자기 파동을 관찰하며, 그것이 이데아에서의 행동 패턴과 거의 정확하게 서로 관련지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존재가 거울을 통해 다른 두 차원에 걸쳐진 채로 비추어 지는 것 처럼요. 그들은 그 쥐의 이름을 '소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었겠지만, 분명히 그를 여러분들의 이데아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파미의 팀은 실험의 결과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소피는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소피의 몸에서 패턴화된 전자기 파동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지만, 반쯤 얼어버린 채 의식을 놓친 소피의 생물학적 신체를 다시 소생시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피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깨어나지 못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소피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날 이후, 파미의 팀 안에는 소피를 추적하면서 그를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하나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7년 동안 특별한 목적없이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쥐를 쫓아다니는 일은 약간 따분한 일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미의 사수 이스마엘은 졸업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메타아에 입

사했습니다. 그는 입사 후 첫 2년 동안은 나름대로 소피를 성실하게 쫓아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피를 추적하고,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자신에게 알람이 가도록 하는 코드를 짜 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합니다. 파미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은 이스마엘과 함께 소피의 행방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그 일은 이스마엘이 짜 놓은 코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다른 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짜 놓은 코드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피가 그들의 감시망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데아의 헬스 앤 시큐리티 (Health and Security, 이하 H&S) 팀은 그 이름과는 약간 다르게 실제 세계의 경찰과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파미과 이스마엘은 H&S로부터 소피의 행방과 관련하여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들의 연구소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석달 전부터 소피의 행방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이스마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미는 공문을 받고, 또 이스마엘과 통화하고 난 뒤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피의 존재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보안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건 자체가 대외적인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소피의 추적 관찰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코드로 대체

해왔다는 것이 사내에 알려지게 되면 이스마엘과 파미는 곤경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바로 짤리겠죠. 이스마엘은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H&S의 감사에 대비한 변명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파미는 오히려 될대로 되라 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H&S가 방문하자마자 그들에게 꺼낸 말은, 메타아의 다른 부서 연구원인 '노아 흥'이라는 자의 계정에 중첩되어 접속된 것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데아에는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어 만들어진 동물의 데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H&S들은 그들의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흥' 사건에서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코드를 가진 동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것이 H&S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무엇과 닿아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데아에서의 계정은, 계정을 소유한 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작성된 코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은 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일종의 거대한 게임과도 같은 것이지만요. 작성된 코드에 기반한 존재의 1인칭 실체에, 의식이 없는 동면상태의 신체가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한 이스마엘은, 노아 흥이 된 소피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을, 그리고 거울 속의 새로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이 일에서, 이스마엘은 그의 인생 경로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드는 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들은 것이지요.

일단, 코드가 실행되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직,간접 지표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겉으로 보이는 직접 지표(렌더드 이미지 모니터링)에서는 소피의 상태가 중첩 접속의 오류처럼 보였습니다만, 소피의 간접지표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첩접속'이란 오류를 통해서 '노아 흥' 박사의 신체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코드와, 소피의 비-신체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코드가 뒤섞였기 때문에 나타난 한 차원 더 심오한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두 명의 흥 박사 중 하나는,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닌 그 사이의 경계 어딘가의 철조망에 걸려서 헐떡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 안에서 실시간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코드들의 전개 양상을 통해 그것이 오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며 계속해서 생성되는 중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생물학적 신체의 상태를 바이털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이지요.

물론, 인간의 경우는 쥐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의식의 축소된 모형인 이데아에서도 그것은 단일화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수 만개의 알고리즘이 수 억개가 넘는 변수들을 통제하며 병렬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스마엘의 가설을 검증하려면, 실제 인간의 신체를 통해 소피가 겪었던 과정을 거쳐봐야 했습니다.

소피의 자동 위치추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코딩해놓고, 이데아의 베추얼-콜퍼로서 제 2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마엘은, 이 사건 이후 골프계를 은퇴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소피를 놓친 일만으로도 모든 이들이 그가 해고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훌러간 셈입니다. 본사에서는 이스마엘에게 파미를 포함한 여덟명의 메인 연구자들과 열두 명의 보조 진행원들을 붙여줬습니다. 이스마엘은 본사에서 머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경영진과 면담했고, 생물 연구소 내의 이스마엘 팀 연구실 간판은 붉은색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붉은색 간판은 향후 7년간 사내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붉은색 간판에는 흰색의 굵은 글씨로 '코나투스(Conatus)'라는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적혀있습니다.

인류는 종종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혁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대부분 폭력적인 과도기를 거쳐왔지

요. 한 번, 지난 세기의 그 전쟁들을 떠올려봅시다. 그리고 수많은 혁명들을 떠올려보세요. 아주 오래 전의 일들부터요. 미지의 영역 속으로 눈을 질끈 감고 뛰어들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시스템의 기본 전제들 역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니까요. 인간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넘어서게 되는 첫 번째 인간은 앞으로 일 년간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오, 상상력의 한계는 걱정하지 마세요.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지난 반 세기동안 모은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흔적들은 빈칸을 흔적도 없이 메워 지울 것입니다.)

파미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이스마엘의 말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실험의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새로운 영역, 바로 인류세 다음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적화된 새로운 인간은 동면상태로 존재하고, 극단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있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임원들을 대상으로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앞으로는,

생물학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존재라기보다, 온전한 존재를 위해 사전에 잠시 머물게 되는 씨앗과도 같은 상태로 이해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글자 그대로 '스스로에 의해 존재하는 존재 -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곳에.. 삶이라는 중간계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벌거벗은 파미는 옅은 미소와 함께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 금속 재질의 차가운 바닥면에 큰 대자로 팔다리를 뻗고 누웠습니다. 마취제가 혼합된 신경전달물질이 그녀의 팔과 연결된 호스를 통해 그녀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 한없이 깊은 물 속으로 '퐁덩' 잠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며, 두려웠던 마음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끼면서, 모든 종류의 의식이 하나 둘 희미해지는 동안, 그녀의 뒤를 이어 이 공포와 황홀함이 뒤섞인 한기를 느끼게 될 모든 자들의 얼굴과 그 표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다.

나는 살아있는 연극으로서의 삶을 믿으며,

그것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겹쳐진 진실에 관심이 간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역할을 맡아 이 연극에 참여하며,

삶은 그것을 의식하는 이상하고도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대부분의 순간들, 결국 둘 중의 하나다.

나의 작업은 삶에 덧대어진 장치들이다.

그것들은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

멀쩡해 보이는 것들에 균열을 내며,

오류를 발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나의 일은 사건을 생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루는 것이다,

조건들의 조합이 생성하는 상황과 장면,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한 기능을 위한 유사-장치들이다.

이것은 스스로 생성되는 장면이자, 구조다.

이것은 집단적인 심리극이다."

(작가의 노트 중 발췌)

박관우 작업의 중요한 핵심은 '현상'으로서의 인간이다. 그는 동시대의 과도기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가운데에 놓인 인간 현상과 세계에 대한 자의식적 '체험'을 탐구한다. 그는 감각을 통한 의식과 자의식의 문제, '믿음'이 매개하는 실재와 허구의 문제, 그리고 이주와 정체화의 문제 등을 구체적인 작업 주제로 다루어왔다.

박관우는 현상의 포착을 위한 장치를 만들고, 미시감(jamais vu)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을 연출하며, 주객의 경계가 사라진 집단적 상황극을 연출하거나, 오직 증언들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체험을 설계하는 등, 기존의 분류를 벗어나는 경계선의 시공(liminal space-time)을 그의 예술을 통해 실험한다. 퍼포먼스와 해프닝, 이벤트의 방식을 이어 받으면서도, 타인과 공유될 수 없는 방식으로 관객 '개인'의 배타적 체험을 유발한다는 점은, 그의 작업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다.

글 | 박관우

인쇄 | 이례문화사

후원 |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 서울문화재단, 세화미술관

첫 번째 판 인쇄 (2022)

두 번째 판 인쇄 (2023)

세 번째 개정판 인쇄 (2024)